

조정훈 당선인 "복지 패러다임 바꿔 불평등 완화" 2



퇴임 앞둔 문희상 "나는 행복한 정치인" 5

코스피(2일) 1998.31 (+8.67P)  
코스닥 716.02 (+7.26P)  
환율(달러당 원화) 1230.90 (+0.60원)  
금리(국고채 3년물) 0.856% (-0.012%p)

## 삼성, 평택에 첫 파운드리 생산라인

EUV 전용 내년 하반기 본격 가동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 전략  
이재용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



삼성전자가 EUV(Extreme Ultra Violet·극자외선) 기반 최첨단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평택캠퍼스에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삼성전자는 올해 2월 EUV 전용 화성 'V1 라인' 가동에 이어 평택까지 파운드리 라인을 구축하며 모바일, 고성능 컴퓨팅(High Performance Computing·HPC),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로 초미세 공정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

다. EUV는 기존 불화아르곤(ArF)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광원이다. 파장의 길이가 불화아르곤의 14분의 1미만에 불과해 보다 세밀한 반도체 회로 패턴 구현에 적합하고, 복잡한 멀티 패터닝 공정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도체의 고성능과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이번 투자는 삼성전자가 작년 4월 발표한 '반도체 비전 2030' 관련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이재용(사진) 부회장은 이날 평택 생산라인 구축과 관련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전 2030과 그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이날 평택 파운드리 라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화성 S3 라인에서 업계 최초로 EUV 기반 7나노 양산을 시작한 이후, 올해 V1 라인을 통해 초미세 공정 생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여기에 2021년 평택 라인이 가동되면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기반 제품의 생산 규모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 삼성전자는 생산성을 더욱 극대화한 5나노 제품을 올해 하반기 화성에서 먼저 양산한 뒤, 평택 파운드리 라인에서도 생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은승 삼성전자 DS부문 파운드리사업부 사장은 "5나노 이하 공정 제품의 생산 규모를 확대해 EUV 기반 초미세 시장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전략적 투자와 지속적인 인력 채용을 통해 파운드리 사업의 탄탄한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중 '양회' 개막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1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양회는 매년 3월 5일 열리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반 연기됐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참석자들이 코로나19 희생자에 대한 애도 묵념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베이징/AP연합뉴스

## 운전자보험 '공포 마케팅' 과열 금감원, 손보사에 '옐로카드'

금융감독원이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과열 경쟁이 붙은 손해보험사 운전자보험 '공포 마케팅'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금감원은 최근 손해보험사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포심 유발 마케팅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법규 준수 유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설명 의무 △적합성의 원칙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등 보험업법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관련기사 8면

**민식이법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 초과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또는 다치게 할 경우

**처벌** - 사망 시 운전자 최대 무기징역  
- 상해 시 운전자 1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 벌금

**주요 내용** -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  
- 스쿨존 내 신호등 우선 설치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손보사들에 법규 준수 유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식이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진 운전자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업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손보사가 운전자보험 가입을 원하는 고객이 실손보장형 상품에 중복 가입돼 있는지를 조회하지 않거나, 상품의 주요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지 않고 허위 정보를 가지고 상품을 판매할 경우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는 등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공

문에 담았다. 보험업법 설명의무 조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해당 계약이 계약자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또한 모집 광고 관련 준수 사항에 따라 보험 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따라 계약자가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중복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8면에 계속 나경연 기자 contest@

## 송파~하남 도시철도 2028년 완공

위례~과천선, 정부과천청사역 연장  
하남~과천~강남 출퇴근 30분내 가능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에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 과천지구에는 위례~과천선을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남교산 3기 신도시(3만2000호)와 과천지구(7000호)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잠실·강남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고 지구 지정부터 대책 확정까지 15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대폭 단

축한 것이 핵심이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했다. 하남교산지구의 경우 송파~하남 도시철도 등 20개 사업에 총 2조 원이 투자된다. 과천지구는 위례~과천선 연장 등 10개 사업에 총 7400억 원이 투자된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하남교산지구는 기존 잠실 방면 50분, 강남역 65분가량 소요되던 통행시간이 잠실 20분, 강남역 30분으로 단축되고 과천지구는 서울 강남 등 주요 도심까지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오픈뱅킹 유목민들이여,  
**i-ONE뱅크에 정착하고  
수수료와 이별하라!**

**무료 정착! 송금수수료 완전 면제 0원**

개인인터넷뱅킹, i-ONE뱅크(개인),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시  
**개인고객 누구나 타행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2020년 12월 31일 까지, 타행 자동이체는 제외)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2014호(2020.05.04) 게시기간: 2021.04.29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서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세인 사람은 개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거부해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080-9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융·항목을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상 위변조 사기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 “불평등 완화 위해 복지 패러다임 ‘고용→생활안정’ 바뀌어야”

## 시대전환 조정훈

“제게 진보인지 보수인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기업규제를 풀어야 하고 노동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보수죠? 신자유주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 국민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든 보장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지속의 문제니까요. 친기업과 친서민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같이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찾아 만들어 가야죠.”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당선인은 2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조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몇 안 되는 ‘경제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세계은행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로 근무했다. 귀국 후에는 재단법인 여사재 부원장과 아주대에서 통일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조 당선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에 대해 묻자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새로운 사회 경제 구도가 급격히 만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 시대전환은 어떤 정당인가

“모토는 ‘두려움 없는 세상’이다. 모든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세상이다. 비정규직이거나 플랫폼 노동을 하더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쉽게 일어설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 ‘생활진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선배 세대가 생각하는 이념진보와 아주 다른 개념이다. 미세먼지가 있을 때 자동차를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활진보의 지지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려면 대중교통이 자가용만큼 편하고 빨라야 해, 이것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30·40대는 앞선 세대와 다르다. 삶을 실질적으로 낮게 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념적 좌우 대립을 넘는 생활문제를 파고드는 정당과 정치인이 출현할 때가 되고도 남았다.”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

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광범위한 영역에서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14세기의 흑사병이나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스페인 독감처럼 전염병이 세상을 바꾼 일이 많다. 곧 커다란 충격이 올 것이다.”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 것인가

“고용지표와 실물지표가 떨어지고 있

### 국민생활 보장 정책 최우선

월 30만 원 기본소득 제안

재정 과감하게 투자해야

기업규제 풀어 노동 유연성↑

친기업·친서민 둘다 잡아야



**약력**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석사 / 세계은행 동유럽 지역국 전문 /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 / 아주대 통일연구소장 및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 시대전환 대표

다. 하지만 그보다 불평등의 극대화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0.1%에서 1%가량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1%씩 손해 보면 될 문제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 기업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직원들은 큰 손해가 없지만, 인근 식당은 초토화된다. 우리 사회에서 각 경제 주체가 충격에 대응하는 능력은 천차만별이다. ‘코로나’라는 거대한 파도가 ‘안전한 자’와 ‘안전하지 않은 자’를 향해 가르듯 나누고 있다.”

-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당선인은 2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규제는 다 풀되 국민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함께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인가

“재정정책과 경제정책의 목표가 사라지고 있다. 산업시대에는 ‘일자리가 복지’라는 말이 통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 일자리는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동소득도 대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 ‘90대 10’의 사회가 ‘99대 1’의 사회로 갈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단 1%만 안정적으로 사는 사회를 99%의 국민이 지켜보기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복지정책의 핵심은 고용안정이 아닌 생활안정으로 가야 한다.”

-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이 있나

“핵심은 기본소득이다. 시대전환에서 제안한 정책은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이다. 세금을 늘리지 않고 기존의 복지와 행정예산을 줄여 만들 수 있는 최대치다. 기본소득이란 것은 복지의 패러다임을 고용에서 자율성을 더 풀어주는 것은 큰 패키지로 풀어야 한다.”

- 경제학에서 금기시하는 ‘공짜점심’에 해당하는 것인가

“‘공짜점심은 없다’는 논리는 산업화 시대의 낡은 이야기다. 일자리 없는 성장이 일상화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을 무겁게 만들어서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인지, 아니면 고용 없는 성장을 계속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나

“지금은 시장유동성이 1100조 원에 달한다.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없는 수요를 창출하고 수요를 감당하는 공급망을 적절히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 여러 확장재정으로 재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행히 우리 재정건전성이 나쁘지 않다. 더 불이 번지기 전에 불을 꺼야 한다. 남은 재정 여력으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1930년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정도를 썼다. 지난해 우리 GDP에 대비해 보면 100조 원 정도 될 것이다. 1년 나라살림의 20% 정도 된다. 재정건전성 논쟁이 있겠지만, 문제는 타이밍이다. 늦을수록 꺼야 할 불의 양이 많아진다.”

- 기업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나

“회사를 막는 법을 만드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과연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냐’고 묻는다면 물음표가 생긴다. 세율의 문제가 아니다. 과연 국민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을 선하게 보는지 등 여러 질문이 들 수 있다. 규제는 더 네거티브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제적인 규제를 다 풀어야 한다. 노동유연성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부작용이 나면 대응하는 형태의 정책이어야 한다.”

- 앞으로 의정활동과 역할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제3·제4의 의제를 계속 던질 것이다. 미래를 고민하는 세력들과 협업을 통해서 국회 내 담론을 크게 일으키고 정부를 설득하고 견인하겠다. 법과 제도로서 답을 제시하고 싶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우리 모두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까다로운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 현대백화점그룹

개인 위생  
매뉴얼 준수

위생 전문가의  
관리

철저한  
소독·살균



# “非메모리까지 평정”... 국내에 ‘K-반도체’ 전진기지 확보

## 삼성, 평택에 파운드리 라인

삼성전자가 21일 경기도 평택캠퍼스에 EUV(극자외선) 파운드리 생산 시설을 구축한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경쟁이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전 세계 IT 공룡들이 맞붙고 있는 격전장이다.

최근 세계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2029년까지 120억 달러(약 15조 원)를 투자해 5나노 공정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나섰고, 시스템반도체 1위 인텔도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저울질하는 중이다.

EUV 파운드리 라인을 앞세워 삼성전자는 1위 TSMC를 추격할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15.9%의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17.8%)보다 다소 떨어지며 추축했다.

1위 TSMC(점유율 54.1%)와 격차도 38.2%포인트에 달한다. TSMC는 애플, 퀄컴, AMD, 엔비디아 등 굵직한 회사들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과감한 투자로 파운드리 매출과 점유율 늘리기에 힘 쏟고 있다.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시스템반도체 부문 매출

‘4차혁명 격전지’ 된 파운드리 시장 “10년내 시스템반도체 1위 달성” 이재용 부회장 ‘비전 2030’ 가속도 초기 투자만 10兆...생산라인 구축 “3나노 개발 중...TSMC 추월할 것”

은 4조5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 부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25.5%)도 처음으로 25%를 넘어서었다.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결과다.

평택캠퍼스 파운드리 생산시설 투자도 마찬가지다. 이번 투자는 작년 4월 발표한 ‘반도체 비전 2030’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반도체 비전 2030에는 133조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1위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파운드리 사업은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 핵심이다.

삼성전자는 비전 발표 이후 화성과 평택에 잇따라 투자를 단행하며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를 추격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이라 기대감을 보인다.

현재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기술을 보



유하고 있는 파운드리 기업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유일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업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한 7나노 제품을 출하했고 작년 하반기 6나노 제품 양산을 시작했다. 5나노 제품도 올 하반기 중 화성에서 먼저 양산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내년 말 평택 파운드리 라인이 본격 가동하면 미세 나노 제품 생산이 크게 늘어나며 파운드리 사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본다. 회사 측은 이를 위해

평택 파운드리 라인 구축에 9조~10조 원을 초기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기도 화성 EUV 전용 V1의 초기 투자 금액(7조 원)보다 많다.

업계는 삼성과 TSMC의 5나노 공정 양산 시점이 같은 만큼 올해를 고객사 확보의 기회로 보기도 한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올해 들어 퀄컴 5G 모뎀칩 생산 계약을 따내는 등 구체적인 성과도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5나노 공정보다 생산

성이 더욱 극대화되는 3나노 공정을 개발 중이다. 여기에는 기존 구조와 다른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GAA(Gate-All-Around)’를 적용해 초미세 공정기술을 한 단계 높인다는 계획이다. 3나노 기반의 제품 생산은 2022년이 목표다.

한편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달 미국에서 열린 예정이던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송영록 기자 syr@

## 5월 수출 급감 속 반도체 선방 2개월 연속 ‘무역적자’ 현실화

1~20일, 20.3%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한국 수출이 이달 들어서도 부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지난달 25.1% 감소한 한국 수출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20% 이상 급감하며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99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선 무역수지도 이달 흑자 전환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선방한 점이 그나마 위안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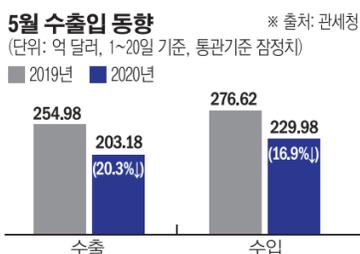
관세청은 이달 1~20일 수출액이 20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3% (51억8000만 달러)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5일로 지난해와 같아 하루 평균 수출액 감소율 역시 20.3%를 기록했다.

한국 수출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3월 확정치 기준 -0.7%로 선방했으나 지난달 25.1% 급감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공포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달 역시 20일까지 수출이 20% 이상 감소하며 타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통상적으로 월말로 가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상당수 업종의 수출이 집중되기 때문에 20일까지의 성적만으로 이달 전체 실적을 판단하기는 이를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 수입 수요가 얼어붙으면서 이달 역시 두 자릿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문병기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3월 이후 미국, EU에서의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달 역시 두 자릿수 감소율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달 20일까지의 수출 품목별 성적을 보면 승용차(-58.6%), 석유제품(-68.6%), 무선통신기기(-11.2%) 등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반면 반도체(13.4%)와



선박(31.4%)은 증가했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이달 1~10일 18.6% 감소했다가 열흘간 13.4%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미국(-27.9%), 유럽연합(EU)(-18.4%), 베트남(-26.5%), 일본(-22.4%) 등에서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중국과 중동으로 수출은 1.7%, 1.2%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른 글로벌 교역 부진으로 수입액 역시 크게 감소했다. 1~20일 수입액은 23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 (46억6000만 달러) 줄었다.

품목별로 정보통신기기(13.1%), 기계류(0.1%), 승용차(27.2%) 등은 증가했으나 반도체(-8.6%), 원유(-69.3%), 가스(-7.3%)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EU(18.7%), 베트남(14.1%) 등은 수입액이 늘었으나 중국(-3.6%), 미국(-24.1%), 일본(-7.9%), 중동(-67.5%) 등은 감소했다.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으면서 무역수지는 26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9억5000만 달러 적자를 내며 98개월간 이어온 무역수지 흑자 행진이 깨졌다.

이달도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이 떨어지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2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대한민국의 자산은 무엇일까요?

노후청사의 변신으로 활력이 넘치는 우리 동네

위기를 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중소기업의 힘찬 기계소리

빛 부담을 덜고 다시 품는 재기의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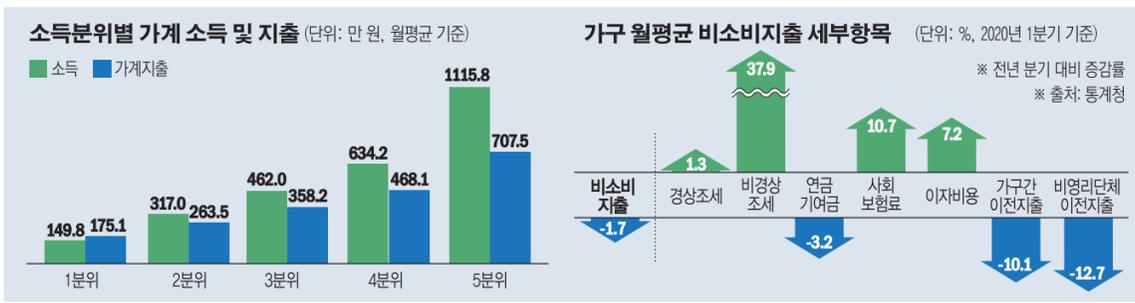
캠퍼가 국민과 기업의 재기를 돕고 국가자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www.kamco.or.kr

# 코로나에 지갑 닫은 가계... 옷 안 사고 문화소비 줄어

##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

월평균 소득 536만원 3.7% ↑  
가계지출 395만원 4.9% 줄어  
가계수지 38% ↑ '불황형 흑자'  
부자도 저소득층도 지출 줄어  
소득격차 1분기보다 확대



은 표본을 통합하면서 고소득 표착률을 높이기 위해 소득구간별로 200만 원 미만 표본을 줄이고, 1000만 원 이상 표본을 늘렸다. 단 기존 통계와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조사에선 기존 방식과 새 방식을 병행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35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7% 증가했다. 근로·사업 소득 증가율은 각각 1.8%, 2.2% 증가에 그쳤지만,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이 4.7% 늘었다. 단 1분기 코로나19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소득 증가세가 2분기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강신욱 통계청

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분기 중 3월 자료에서 사업소득이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분기 사업소득 증가의 추이가 지속할지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가계지출은 394만5000원으로 4.9% 줄었다. 조세 등 비소비지출은 1.7%, 소비지출은 6.0% 각각 감소했다. 평균소비성향도 67.1%로 7.9%포인트(P) 하락했다. 소비지출을 항목별로 보면 의류·신발은 28.0%, 문화·오락은 25.6%, 교육은 26.3% 각각 급감했다. 가계수지 흑자는 141만3000원으로 38.4% 급증했다. 순전히 지출 감소의 영향이다.

소득 분위별로 소득 증가는 고소득 가구에, 지출 감소는 저소득 가구에 집중됐다. 소득은 1분위(하위 20%)에서 0.0%, 2분위에서 0.7%, 3분위에서 1.5% 늘었는데 그쳤지만, 4·5분위에선 각각 3.6%, 6.3% 늘었다. 반면 지출은 1~3분위에서 각각 10.8%, 7.1%, 9.1% 급감했으나, 4·5분위는 1.0%, 2.3% 주는 데 그쳤다.

저소득 가구의 지출 감소는 소득 감소로 일정 부분 설명된다. 1분위 소득은 149만8000원으로 지출(175만1000원)보다 적다. 적자가구 비율이 높아 지출이 늘기 어려운 구조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이나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

고 외부활동이 줄면서 소비지출 감소 폭이 커졌다. 항목별로 가정용품·가사서비스가 46.7%, 의류·신발이 36.0%, 오락·문화는 26.1% 급감했다. 2~3분위도 소득 증가율이 각각 0.7%, 1.5%에 그쳤다. 1분위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줄었다. 3분위는 소득 증가율이 1~2분위보다 높지만,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1.7%에 머물렀다.

상대적 고소득층인 4·5분위(상위 20~40%)는 소득이 각각 3.7%, 6.3% 늘었음에도 소비지출이 줄었다. 항목별로 4분위는 의류·신발(-26.4%)과 교육(-22.0%), 5분위는 오락·문화(-34.4%)와 교육(-27.5%) 지출을 크게 줄였다. 주로 쇼핑·여행 관련 지출이다. 반면, 보건 지출은 각각 31.5%, 9.9% 늘었다. 교통 지출도 21.0%, 27.5% 증가했다. 감염병 확산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구매와 자가 이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소득 불평등 정도는 전년 동기보다 커졌다. 1·5분위 간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1배로 지난해 1분기(5.18배)보다 0.23배 확대됐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코스피 장중 2000선 돌파 장중 2000선을 넘어섰던 코스피가 1990대로 마감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8.67포인트(0.44%) 오른 1998.31을 가리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美, 규제 1개 신설할 때 7.6개 폐지”

### 전경련, 트럼프 행정부 정책 조사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규제 1개를 신설할 때 7.6개를 폐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정책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애초 규제 1개를 신설할 때 2개를 폐지하겠다는 목표인 '투-포-원(2:1)' 룰을 3배 넘게 달성한 셈이다.

신규규제 도입으로 인한 순증 규제비용을 줄이는 정책도 당초 목표인 277억 달러(약 34조 원)의 1.6배를 달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비효율적 규제를 개혁해 미국 경제의 규제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취임 첫날 비서실장을 통해 긴급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문제 등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새로 임명할 때까지 신규규제 도입과 심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곧이어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고, 신규규제로 인한 총 규제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 13771호를 발동했다. 2017년 회계연도 순증 규제비용 허용치는 '0' 이하로 설정했고, 매년 기관별 감축 목표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런 움직임으로 2016년부터 입법을 추진해온 규제 중 635건은 철회됐고 700건은 장기검토과제로, 244건은 검토 보류로 재분류됐다.

2:1 룰의 경우 도입 첫해인 2017년에는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2.3개를,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2.6개, 4.3개를 폐지했다. 경제에 연간 1억 달러 이상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기준으로 하면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5개를 없앴다.

총 규제비용 순증가격은 2017년 81억 달러를 줄였고, 2018년에는 230억 달러, 지난해에는 135억 달러를 감축했다. 올해 목표치는 516억 달러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 국민취업지원제 내년 시행... 취약계층 200만명 생계 지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놓인 저소득층·청년 등에 최대 300만원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정부가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하위법령 입법절차에 착수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실업급여)을 뒷받침하는 2차 안전망이 구축돼 연간 200만 명 이상의 취약계층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앞으로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던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하위법령 입법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 청년층(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다.

그간 전체 취업자 2656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중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구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들에게 취업 지

원을 하는 것은 물론 실직 시 실업급여를 대체해 생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앞으로는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 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 명 등 연간 200만 명 이상의 취약계층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 가입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상징성이 크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취약계층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의 발판이 마련되게 됐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올해 말부터 적용되며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고용보험 혜택을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질 시 실업급여를, 출산 시 출산 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 도시민박 7월부터 내국인 손님도 허용

### '공유경제 활용 방안' 확정

올해 7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 거주자는 본인의 주택으로 내국인 대상 민박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민박객만 받던 것을 내국인 민박객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2년간 특례로 이를 허용한 뒤 일정 요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번엔 △주방 공유영업 허용,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규제 샌드박스 과제 제2호 2건) △공공조달 시 중소기업의 타 기업 생산시설 활용, 축산물 가공업자 검사실 공유 대상 확대, 기상서비스업 사무실 공유 허용(시설 공유 18건) △중소기업의 대학·대기업 연구장비 활용 기회 확대,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확대, 항공기정비업 장비 임차 허용(장비 공유 14건) △연구기관·중소

기업 공동 R&D 대상 확대, 측량업 등록시 중복되는 인력 공유 허용, 문화재수리 원·하도급 업체 간 기술인력 공유(기술·인력 공유 5건) △고품질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확대, 스텝 데이터의 범주 예방·대응 목적 공유,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공유재산 이용 기간 확대(공공자원 개방·민간활용 7건) 등 5개 분야 46개 과제를 개선한다.

우선 외국인만 민박객으로 받을 수 있는 도시민박업이 허용을 내국인 민박객까지 확대한다.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 거주자에게 2년간 한시 허용한 뒤 법령 정비를 거쳐 영입 연 100일, 민박사업자 상시 거주, 위생·안전 준수 등의 조건하에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2015년부터 96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했으나 내용이나 범위를 공급기관이 정해 실수요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민간이나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6대 영역 46개 분야의 중점 데이터를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개방한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 통합당 ‘윤미향 국조’ 압박... 여 “결과 보고 조치”

### TF 구성... ‘윤미향 방지법’ 마련 “시민단체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미래통합당이 ‘윤미향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부정 사용 의혹 관련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TF 위원장은 광상도 통합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미래한국당이 최근 윤 당선인과 정의연의 진상규명 TF를 구성한 데 이어 통합당도 TF를 구성하면서 공조를 통한 국정조사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배 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와 사퇴를 촉구하고, 국정조사 추진도 논의할 것”이라며 광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그 외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정책위 의장은 “시민단체가 회계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TF에서 만들겠다”면서 ‘표리부동’ 행위를 경고했다.

이와 관련 통합당과 한국당은 ‘윤미향 방지법’ 마련에 나섰다. 정운천 한국당 최고위원은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해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은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을 국가가 통합 관리하는

‘에듀파인’ 방식이 거론된다. 현재 국가보조금과 기부금 수익으로 운영되는 대다수 시민단체에 대한 감시 체계가 사실상 전무하다. 이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여당의 핵심 지지층인 시민·사회단체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 만큼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시민단체 출신의 여당 당선인들이 다수인 데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시민단체에 적용하는 것은 활동에 제약을 줄 것이라 회의론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 확산에도 윤 당선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신중론’을 이어갔다. 외부 기관들의 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기 전까지 조치를 유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관련 부처와 외부 기관에서 정의연의 회계와 사업을 조사 중”이라며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김 전 원장은 2018년 금감원장 임명 과정에서 외유성 혐의 출장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여권이 엄호에 나서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판단이 나온 이후 김 전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거취를 정리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5일 기자회견 등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 관측이다. 김하늬 기자 honey@

## 문 대통령 “정부·기업은 한배... 위기 극복 지원”

### 주요 산업계 간담회 참석 “사회적 대타협 이룰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 주력산업 보호와 일자리 지키기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부와 기업은 지금 한배를 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의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유동성 위기를 잘 넘기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금융권, 기업에 대한 당부 발언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금융권을 향해 “유동성 위기를 지원하는 것이 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신

속하게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지원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기업에는 “지금의 위기는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다. 왜냐하면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함께 도모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면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해 낼 때까지 기업의 어려움을 정부가 돕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업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화가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친환경 또는 탈탄소 등의 방향으로 가는 게 가속화될 테니 기업들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간 산업 안정기금에 대한 기업의 기대가 크다”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 위기를 넘기려면 법과 제도 정비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회장은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만난 것을 언급하면서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항공업계에서는 “교류 중단 해소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조선업계는 여객선과 교육선, 실험선에 대한 공공발주 등을 제안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우량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일환 기자 whan@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퇴임 앞둔 문희상 “팩스 코리아나 응원”

### 55년 정치 여정 마무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고민을”

퇴임을 앞둔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팩스 코리아나 시대를 만들고 싶었다”며 “몸은 떠나도 문희상의 꿈, 팩스 코리아나 시대가 열릴 길 간절히 바라고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만감이 교차하지만 후회가 없는 삶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 7월 20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에 오른 문 의장은 이날 29일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를 마치게 된다.

학생운동 투신 이후 시작된 55년간의 역정을 회고한 그는 “1965년 월기 넘치던 법대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나섰던 시기를 떠올리면 55년의 세월, 1980년 서울의 봄을 기점으로 하면 40년, 1987년 제2서울의 봄에 첫 창당에 참여한 시절을 기준으로 하면 33년”이라면서 “평생의 업이자 신념이던 정치를 떠난다니 심경이 복잡했다”고 했다. 문 의장은 정치 인생에서 가장 기뻐했던 순간과 슬펐던 순간에 대해 각

각 197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던 순간,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순간을 꼽았다.

가장 아쉬웠던 순간에 대해선 아들 석균 씨가 지난 총선 때 공천 세습 논란에 휘말렸을 때를 언급했다.

그는 또 “팩스 아시아의 시대에는 한국·중국·일본 3국이 서로 양보하며 협력 속의 경쟁이 필연”이라며 “그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팩스 코리아나의 꿈을 실현하고 우뚝 서길 저는 염원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여권 인사 중에선 처음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간 국정운영 방향을 묻는 질문에 “만약 건의할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는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살 때 타. 팔 때 타. 투자 타이밍이 더 유익하다. 티레이더 인공지능 티레이더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판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는 0.066% 등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증권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에이전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시인 심사일 제9-62호(2019.02.28)

# ‘기술패권’ 칼 가는 시진핑... “5년간 IT에 1700조 투입”

### 美 제재 벗어나 반도체 자급자족 양희서 5G·AI 등 기술 투자 예고 관련株, 지원 기대감에 고공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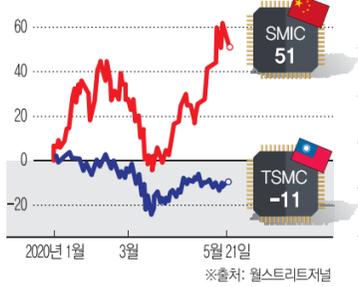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미국과의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회심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다.

2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에 2025년까지 10조 위안(약 1700조 원) 투자를 골자로 하는 마스터플랜을 공개할 전망이다. 각 지방정부와 알리바바그룹홀딩, 화웨이 테크놀로지, 텐센트 등 중국 대표 IT 기업들이 새 첨단기술 인프라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5년 전 발표했던 ‘중국제조 2025’ 계획을 떠올리게 한다. 중국제조 2025는 첨단 제조 분야에서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공산당 지도부의 원대한 계획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격한 반발을 불러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중국 종합 IT 서비스 업체인 디지털차이나의 마리아 궈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런 일은 처음이다. 중국은 글로벌 기술

#### 중국 SMIC와 대만 TSMC의 추가 상승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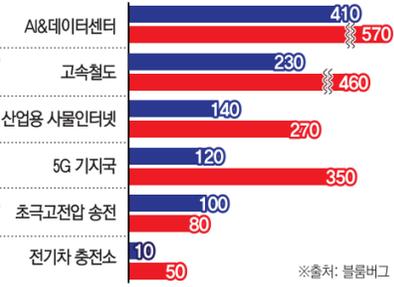
경쟁에서 이기려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며 “이미 돈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관련주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정부가 반도체 자급자족 전략인 ‘반도체 굴기’를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는 기대로 최근 고공행진하고 있다.

투자자들도 세계 각국이 이동통신망을 5G로 업그레이드하고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의 첨단기술에 대한 새로운 장기 전략이 당장 경기부양 효과를 낼지 또 계획 실현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지 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하이 소재 경영대학원인 중국유럽국제비즈니스스쿨의 주젠 교수는 “새로운 인프라만으로 중국 경제를 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현재 정부 부채 수준이나 부채 관리 능력을 격정한다면 이런 계획을 펼칠

####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연평균 투자액 (단위: 억 달러)



수 없다”며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이는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회 개막을 앞두고 또 막말을 쏟아냈다. 트럼프는 전날 트위터에 “중국의 어떤 포라이가 방금 수십만 명을 죽인 바이러스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았다”며 “제발 이 얼간이에게 세계적 대량 살상을 저지른 것이 중국의 무능이라는 것을 설명해줘라”라고 비난했다. 이는 “코로나19 책임을 전가하려는 일부 미국 정치인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는 귀웨이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대변인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재무장관도 전날 “중국은 악랄한 독재정권의 지배를 받고 있다”며 “그들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주기로 한 코로나19 대응 자금 20억 달러는 세계에 초래한 비용과 비교하면 쥐꼬리 같은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경제재개’ 몸달은 트럼프 “G7정상, 내달 美서 보자”

미국의 50개 주가 모두 부분적 또는 전면적 재개동에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취소됐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면 회의를 취소하고 화상으로 열기로 했는데, 다시 대면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음달 G7 정상회의를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이 위대함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다”면서 “원래 예정된 날짜 전후로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의 전설적인 캠프데이비드에서 G7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도 정상 복귀를 시작했다. G7 개최는 모두의 정상화를 위한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올해 G7 의장국이다. 의장국은 회의 장소와 의제를 정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코로나19 확

산세가 심상치 않자 정상회의를 취소하고 화상회의로 변경했다.

트럼프가 대면 개최로 방향을 선회한 데는 경제 재개 드라이브를 견인하는 상황에서 정상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주최해 최악의 코로나 위기가 지났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코네티컷주를 마지막으로 이날부터 50개 모든 주가 경제를 재개했다.

미국 외 다른 G7 국가들도 표면적으로는 정상회의의 대면 개최에 긍정적인데,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성명을 내고 “위기 대응 국면에서 G7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로 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대면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G7 정상회의가 계속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주축으로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코로나’ 옆친데 ‘대홍수’ 덮친 美 미국 미시간 중부 마들랜드에서 20일(현지시간) 폭우로 댐 2곳이 무너져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한 가운데, 일부 주민이 물바다가 된 도로에서 노를 젓고 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대피소에서도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시간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이동제한이 28일까지 연장됐지만 이번 홍수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들랜드/로이터연합뉴스

## 日 줄설 때, 韓 돈 썼다 재난지원금 속도 “日敗”

### 美 언론, 양국 자금신청 방식 비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자국민에 현금을 직접 주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지급 속도 등의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보·기술(IT)화가 진행된 한국의 행정 인프라가 서류 위주의 일본 접근 방식보다 신속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 ‘바이러스 구호에서 최신 기술에 능통한 한국이 서류작업 위주의 일본을 이겨(In Virus Relief, Tech-Savvy Korea Beats Paperwork-Heavy Japan)’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의 차이를 집중 조명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관련 예산안이 같은 날인 지난달 30일 각국의 국회를 일제히 통과했다. 한국에서는 가구당 40만~10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일본에서는 전 국민에 1인당 10만 엔을 주는 예산안이 일제히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하지만 수주 뒤 두 나라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에서는 19일 기준으로 전체 가구 가운데 80%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 반면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우편으로 신청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주민들 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한 곳은 19%에 불과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신속한 지급의 핵심 요인으로 중앙집중적인 행정 능력과 신분확인시스템, 그리고 스마트폰 문화를 꼽았다. 또 50대 남성의 사례를 인용해, “한국에서는 온라인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가 1분도 안 걸린다”며 “신용카드로 재난 지원금을 쓸 때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용 금액을 알려주면서 3개월 안에 쓸 수 있도록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일본은 개인 식별에 필요한 핀(PIN) 번호와 카드를 보유한 국민이 적어 행정 절차가 서류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한 여성은 “온라인으로 10만 엔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접속 폭주로 시스템이 다운됐다”며 “우편으로 신청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포기 상태”라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 바이트댄스 ‘틱톡’ 덕에 기업가치 123兆 돌파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이를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의 기업가치가 1000억 달러(약 123조 원)를 돌파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장외시장에서 바이트댄스의 기업가치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2년 전 750억 달러에서 30% 이상 뛴 것이다.

장외시장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장외시장에서는 바이트댄스의 기업가치가 1050억~110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한때 1400억 달러에 이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바이트댄스는 비공개 기업으로, 특정 투자은행이나 펀드가 출자할 때 평가된 주식가치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한다.

바이트댄스의 몸값이 치솟는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광고 매출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맨해튼벤처 파트너스의 안드레아 윌슨 파트너는 “이는 바이트댄스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을 능가할 수 있다는 전 세계 흐름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바이트댄스는 산하 틱톡이 미국의 젊은 층, 특히 10대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면서 짧은 기간에 강력한 온라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모바일 앱 시장분석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올 1분기 틱톡 앱 신규 다운로드 수는 3억1500만 건에 달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 틱톡의 운영 방식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증가하는 와중에도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의회는 틱톡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바이트댄스는 이런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부문을 이끌어온 케빈 메이어를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틱톡 최고경영자(CEO)로 영입했다.

앞으로 바이트댄스는 전자상거래와 게임 분야를 강화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코로나19로 글로벌 기술기업들이 감원을 단행하는 상황에서 채용을 늘려 연내 4만 명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창립 52주년

동서식품

# 내일을 향해 함께 갑니다

지난 52년, 당신과 함께  
향기로운 행복을 채워왔습니다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순간이 행복해지도록

**Maxim.**  
커피라는 행복



# 처벌 앞세워 가입 유도... '민식이법' 빌미 수수료 장사

## 운전자보험 판매 실태

# 직장인 40대 이모 씨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로부터 운전자보험 가입 권유를 들었다. 설계사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기존의 합의금(5000만 원 담보)으로는 형사사건 처리가 어렵다며 추가로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이모 씨는 설계사가 2만 원만 추가로 더 내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입을 결정했다. 이모 씨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본인이 실제로 내야 하는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설계사의 말에 차마 가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스플론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보장 범위를 확대한 운전자보험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4월간 손해보험업계에서 운전자보험만 5만4600건이 판매돼 전달과 비교해 무려 75%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운전자보험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이모 씨의 사례처럼 형

과실 없어도 형사처벌 공포 만연 1개월 새 판매량 75% ↑ '55만건'

단가 낮고 경쟁력 확보 힘들지만 설계사 '수당 챙기기' 수단 전략 "고객이 보험 필요성 판단해야"

사사건'의 처벌을 강조하면서 고객에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적 책임을 주로 다룬다.

민식이법은 명문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 운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것이 아니고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에 생긴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묻는다.



그런데도 운전자들 사이에선 과실이 없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의 막연한 공포가 자리한 상황이다. 법원이 새로 개정된 법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를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러한 '가능성'을 이용해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형 GA사 한 설계사는 "형사처벌에 대한 담보를 기존보다 더 크게 가져가는 건 사실 나쁘지 않다"면서도 "보험 특성상 같은 상품이라도 가격을 다

르게 책정할 수 있고, 민식이법을 무기로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운전자보험은 손보사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다. 단가도 낮을 뿐더러 보장을 특화해서 경쟁력을 갖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도 이번처럼 운전자보험의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이례적으로 본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사안을 두고 쉽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급

격하게 운전자보험이 판매된 원인으로도 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이 단가는 낮더라도 수당을 챙길 수 있기에 보험사보다는 설계사가 '민식이법'을 활용해 운전자보험을 권유하는 측면이 있을 순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불완전판매의 소지를 방지하려면 설계사의 말보다 고객 스스로 보험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반면 이렇게 과열된 시장이 고객으로서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말하는 측면도 있다. 갑자기 관심이 집중된 보험이기에 보험사로서 타사와 더 강한 경쟁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해 보험사는 보장성을 확대해서 경쟁우위를 가져야 한다.

손보업계 다른 한 관계자는 "과거의 차아보험도 이렇게 과열된 측면이 있었는데, 당시 초기에 나왔던 상품은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라며 "소비자에겐 더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다. 경쟁이 꼭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 병원 매출 급감 속 성형외과·안과 '코로나 무풍지대'

### 하나카드 1분기 매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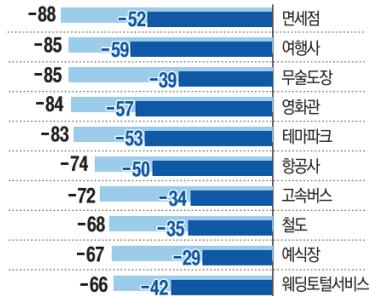
전년비 매출 각각 9%·6% 늘어 마스크 판매 약국도 15% 증가 면세점 -52%·항공사 -50% 등 여행 관련업종 피해 가장 심각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성형외과와 안과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하나카드의 1분기 매출을 업종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성형외과와 안과의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9%, 6% 늘었다. 공적 마스크 판매 덕에 약국 매출 역시 15% 증가했다.

감염 우려에 병원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같은 기간 소아과(-46%), 이비인후과(-42%), 한의원(-27%) 등 대부분의 병·의원 매출이 급감

매출 감소 상위 10개 업종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



한 것과 대조된다. 대중교통 이용 자제 속에 자전거 매출도 69%나 급증했다. 수입 신차 역시 11% 늘었다. 반면 국산 신차(-23%)와 중고차(-22%)는 20% 넘게 줄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은 여행 관련 업이었다. 여행사 매출이 전년 대비 59% 감소하고, 면세점(-52%), 항공사(-50%) 등이 반토막이났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3월만 따져보면

매출 증가 상위 10개 업종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



면세점(-88%), 여행사(-85%), 항공사(-74%)가 더 심각했다.

휴원 권고와 영업 규제를 받은 학원과 유흥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무술도장과 학원의 3월 매출은 전년 대비 85% 급감했고, 예체능학원(-67%), 외국어학원(-62%), 입시·보습학원(-42%) 등도 타격이 컸다. 노래방은 매출이 50%가 줄었고, 유흥주점(-39%), 안마시술소(-39%)도 손님이 폭

급했다.

밀집도가 높은 영화관 역시 3월 매출이 전년 대비 84%나 급감했으며, 놀이공원(-83%), 사우나·찜질방(-59%), 헬스클럽(-54%) 등도 50% 넘게 급감했다.

반면 홈쇼핑과 홈술 관련업은 호황을 보였다. 정육점과 농산물 매장의 3월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26%, 10% 늘었다. 주류전문 판매점의 매출도 20% 불었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편차가 있었다. 신천지 여파에 대구의 1분기 카드 매출 감소율이 17.9%로 가장 컸고 부산(-16.8%), 인천(-15.7%), 제주(-14.6%), 서울(-13.5%), 경기(-12.5%), 경북(-11.9%) 순으로 나타났다.

정훈 연구위원은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고 긴급재난 지원금도 식재료 등 주로 생필품 구입에 사용될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업종의 매출 정상화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여행과 항공, 숙박, 유흥업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운전자보험 '공포 마케팅' 경고

▶1면서 계속

금감원이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보험업법에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손보사들이 소비자의 중복가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손보사가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를 상대로 추가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은 실손담보 2개 이상 가입한 경우라도 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지나친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소비자를 보험에 가입시키는 공포 마케팅에도 강한 경고를 보냈다.

특히, 고객에게 상품의 변경이나 종료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전달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즘에는 '상품이 곧 없어지니까 빨리 가입하라'는 식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손보사의 공포 마케팅도 많아졌다."

상품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예정이 없는 데도 허위로 정보를 전달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판매를 하지 말라는 내용도 공문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 AIA생명, 건강관리 결과 따라 혜택

### (무)보장~케어 선지급 종신보험

AIA생명은 최근 대표적인 토털 라이프케어 상품인 '(무)보장부터 케어까지 선지급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무)보장부터 케어까지 선지급 종신보험'은 AIA생명의 건강습관 형성 프로그램인 'AIA 바이탈리티'를 적용해 고객이 직접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인 상품이다.

AIA 바이탈리티 앱에서 건강관리 노력을 하면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매주 통신비 할인, 커피 쿠폰 등 리워드를 지급한다. 또한 고객의 건강관리로 결정된 바이탈리티 등급에 따라 전체 납입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해 준다.

'(무)보장부터 케어까지 선지급 종신보험'은 다양한 중요 질병 보장은 물론 고객



맞춤형 설계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사망 보장을 제공하는 종신보험이지만 암, 중증 치매 등 9대 질병 진단이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 개시일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 100%(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시 50% 지급)를 '평생케어 보험금' 명목으로 선지급해 살아있는 동안 질병 위험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종신) 중 선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의 105%를 보장하며, 선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평생케어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보험가입 금액의 105%에서 이미 받은 평생케어 보험금을 차감해 보장한다.

곽진산 기자 jinsan@

## 수은, 5660억 켄거루본드 발행

한국수출입은행은 호주에서 7억 호주 달러(약 5658억9400만 원) 규모의 켄거루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켄거루본드는 호주 자본시장에서 외국 기관이 발행하는 호주 달러화 표시 채권을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이후 아시아계 기관이 켄거루본드 발행에 성공한 건 수은이 처음이다.

이날 켄거루본드는 만기 3년의 변동금리채 5억 호주 달러와 고정금리채 2억 호주 달러로 구성된 듀얼 트란체(dual tranche) 구조로 발행됐다.

채권 발행에는 57개 투자자가 총 17억 호주 달러 주문을 냈으며, 이를 활용해 수은은 미 달러화 채권 대비 10bp 이상 경쟁력 있는 금리로 발행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 DB손보 '교통·환경 챌린지' 스타트

### 5개 팀 사업비·액셀러레이팅 지원

DB손해보험은 2019년 업계 최초로 교통·환경 분야의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한 소셜벤처 프로그램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를 시작했다.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국내 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소셜벤처 지원형 사회공헌 사업이다. 손해보험 업종 특성에 기반을 둔 교통, 환경 현안과 관련된 소셜 벤처들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일시적 자금 지원이 아닌 사회적 경제단체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계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공헌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 및 손해를 안정화 등의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19년 1기 공모 결과 총 134개 기업이 응모했으며, 서류심사와 본선심사를 거쳐 △크기리 공장 △보니엔코 △도도시 △한국에너지재단기술원 △소나무 등 5개 소

설벤처를 선정했다.

교통·환경 챌린지 2기는 4월 13일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서류와 대면심사, PT심사를 거쳐 초기 창업 단계의 시드그룹과 사업 고도화 단계의 성장그룹으로 나뉘다 음달 26일까지 총 5개 팀을 선발한다.

선발된 팀들은 최대 1억 원의 사업비와 액셀러레이팅을 지원받게 된다.

곽진산 기자 jinsan@

# 금호타이어, 中 난징공장 유희 설비 매각

파키스탄 '센추리'에 250억 규모 모기업 中 더블스타, 생산 효율화 트럭·버스용 접고 고급타이어 집중



금호타이어 중국 현지공장 현황

준공	생산능력(본)	총 투자비(달러)
난징	1기: 1996년	폐쇄
	2기: 2005년	380만 (1·2기 합산)
톈진	2006년	1160만
창춘	2007년	400만

\* 출처: 금융감독원 (2019년 기준)

2018년 더블스타에 매각된 이후 빠르게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금호타이어가 중국의 일부 유희 생산설비를 파키스탄 '센추리 엔지니어링'에 매각한다. 추정 매각 금액은 약 250억 원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파키스탄 자동차 부품기업 '센추리 엔지니어링'에 중국 난징공장 트럭·버스 타이어 (TBR) 생산설비를 매각한다.

구체적인 매각 규모와 금액 등을 합의한 가운데 생산관리 및 기술 이전 등 막바지 부수적인 협상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타이어가 매각을 추진 중인 설비는 중국 장쑤성 난징에 들어선 2기 공장 설비 가운데 트럭·버스 타이어 생산 부문이다.

앞서 지난해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된 금호타이어는 생산 효율화 작업을 추진, 승용차와 고급·고성능 타이어에 집중하고 있다.

대주주인 중국의 더블스타가 트럭·버스 타이어에 집중해온 만큼, 분야별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금호는 사실상 중국 현지에서 트럭·버스 타이어 생산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난징공장 트럭·버스 생산공장은 유희 설비로 분류됐고, 꾸준히 매각 대상을 물색해왔다.

결국, 앞서 기술이전 협약을 맺은 파키스탄 센추리에 매각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까지 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매각대금으로 250

억 원을 추정하고 있다. 초기 약 1억2000만 달러를 투자한 난징공장에서 트럭·버스 타이어 생산설비가 차지하는 부분과 매각 이후 생산관리 및 생산기술 이전 등을 산정한 규모다.

센추리는 자동차 배터리를 포함해 차 부품 사업을 추진 중인 파키스탄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이다. 2017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자동차 타이어를 확장한 후 글로벌 유수의 관련 기업과 MOU 및 기술이전, 생산설비 확장 등을 추진 중이다.

센추리는 타이어 산업의 불모지나 다른

없었던 파키스탄에서 타이어 제조 공장 설립과 운영을 통해 파키스탄 내 자동차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2018년 금호타이어는 센추리와 타이어 제조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기술 수출은 국내 타이어 업계 가운데 최초였다.

금호타이어는 이 계약에 따라 2028년까지 센추리에 타이어 제조 전반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금호타이어는 초기 기술 이전료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확보했고, '러닝 로열티' 조약에 따라 향후 센추리 타이어 매출의 2.5%를 지급받기로 했다.

이번 난징 생산설비 매각 역시 센추리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500만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 등을 맺은 파키스탄 센추리와 난징 2기 공장 가운데 TBR 설비 매각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 올해 안에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제주항공도 '유증' 7월 이내 1700억 규모 추진

제주항공은 21일 총 1700억 원 규모의 유증증자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예상 주당 발행가는 1만4000원이며, 발행 예정 주식 수는 총 1214만2857주다. 유증증자가 이뤄지면 제주항공의 전체 발행 주식은 기존 2635만6758주에서 3849만9615주로 늘어난다. 7월 이내에 증자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운데 자구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유증증자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유증증자 외에도 전 임원의 30% 이상 임금 반납 및 전 직원 휴직 실시, 자산 매각, 기타 불요불급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현대엘리베이터가 탄소섬유벨트를 적용해 개발한 승강기 권상기.

# 1분 1260m 상승 현대엘리베이터 세계 최고속 달성

현대엘리베이터는 세계 최초로 탄소섬유벨트 타입 분속 1260m 엘리베이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2009년 12월 당시 세계 최고 속도인 분속 1080m 엘리베이터 개발에 이은 두 번째 쾌거다.

분속 1260m 엘리베이터 시스템의 핵심은 신규 개발한 탄소섬유벨트다. 승강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금속 로프 대비 중량이 6분의 1에 불과해 높이 600m 이상 운행이 불가능했던 행정거리를 1000m 이상으로 확장하는 한편 전력 사용량은 30% 감소시켰다. 특히 고구 진동수가 높아 초고층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람, 지진에 의한 공진을 미연에 방지, 안전한 주행을 가능케 한다. 이 시스템을 현존하는 지상 최고 건물 부르즈 할리파(828m)에 적용하면 현재 57초인 최고 층 도달 시간을 46초로 20% 단축시킬 수 있다.

송승봉 대표이사는 "국내 유일의 토종 승강기 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와 협력사, 연구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세계 최초, 최고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점에서 한국 승강기 산업 발전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3일 창립 36주년을 맞는 현대엘리베이터는 2022년 본사가 이전할 충주에 세계 최고 높이의 테스트 타워를 건설하고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운행할 계획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SK, 소셜벤처 '에누마' 지분 투자... 교육 사각지대 없앤다

취약·장애아동 대상 비대면 교육 20개국 애플 앱스토어 교육 1위 최태원 회장의 '임팩트 투자' 사회적·경제적 가치 동시 창출

SK(주)가 교육 스타트업 에누마(enuma)에 임팩트(Impact) 투자를 단행했다.

21일 SK(주)에 따르면 이 회사는 35억 원을 투입해 에누마의 주식 4.2%를 확보했다.

에누마는 2012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한인 부부인 이수인·이건호 대표가 창업한 교육 스타트업으로, 지역과 장애 등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교육 앱을 내놓고 있다.

2014년에는 장애 아동을 위해 선보인 수학 교육 애플리케이션 '토도수학(Todo Math)'이 전 세계 20개국 애플 앱스토어 교육 부문 1위, 누적 다운로드 수 700만을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에누마는 2017년 사회혁신 기업가들에게 수여하는 '아소카 펠로우'에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는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인류의 문명 퇴치를 과제로

내걸고 후원한 아동 교육 경진대회인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에서 대상을 거머쥘기도 했다.

SK(주)는 에누마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임팩트 투자를 진행했다. 에누마가 학습이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전 세계의 불평등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SK(주) 관계자는 "투자형 지주회사로서

임팩트 투자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며 "에누마는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교육분야 소셜벤처로서 SK(주)가 추구하는 투자철학과 원칙에 부합하는 비전과 역량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기업의 생존 필수요건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동시 추구'를 제시함에 따라 '더블 보텀 라인(DBL)' 경영 기조로 임팩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36만원대 쿼드카메라 폰 'LG Q61' 출시

6.5형 화면에 4000mAh 배터리

LG전자가 LG 벨벳(LG VELVET)에 이어 'LG Q61'(사진)을 출시하며 마스크 프리미엄부터 실속형까지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한다. LG전자는 29일 이동통신 3사, 자급제 채널을 통해 실속형 스마트폰 'LG Q61'을 국내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출고가는 36만9600원이다.

LG Q61은 전면 1600만 화소 고화질 카메라, 후면 각각 4800만, 800만, 500만, 200만 화소의 표준, 초광각, 심도, 접사 카메라를 탑재했다. 후면 쿼드 카메라는 최대 4배 망원부터 3~5cm 거리의 접사까지 다양한 사진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다.

LG전자는 최근 동영상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LG Q61에 6.5형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전면 베젤을 최소화했다. 또 홀인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전면 카메라가 차지하는 면적도 줄였다. 가로가 넓은 19.5:9 시네마틱 화면 비율을 구현해 몰입감이 높았다.

LG Q61은 4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동영상 시청, 웹서핑 등 전력 소비가 많은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배터리 걱정을 덜었다. 입체 음향의 강점은 그대로 계승했다. LG Q61은 DTS:X 3D 입체 음향 기능을 탑재, 최대 7.1채널의 영화관 같은 고품격 입체 음향을 구현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 현대중, 총 2200억 규모 원유운반선 2척 수주

현대중공업그룹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유럽 소재 선주사들과 30만 톤(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2200억 원이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330m, 너비 60m, 높이 29.7m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2년 상반기 선주사들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특히 선박에는 스크러버(탈황장치)가

적용돼 강화된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배출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7일 유럽 선주사로부터 15만8000t급 대형 원유운반선 2척을 1500억 원에 수주한 데 이어, 2주 만에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을 추가 수주했다.

영국 조센·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는 800척 이상의 초대형 원유운반선이 운항 중이며, 현대중공업그룹은 그중 25%인 211척을 건조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대한항공, A350 카고도어 400대 추가 계약

대한항공은 최근 에어버스의 자회사인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와 A350 항공기 카고 도어(Cargo Door) 후속 물량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2011년 총 800대에 달하는 A350 항공기 카고 도어에 대한 개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2년 개발해 현재까지 500여 대 분량의 카고 도어를 납품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기존 계약 800대 분량을 납품한 이후, 추가로 400대의 A350 항공기 카고 도어를 납품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이 설계 및 개발한 A350 항공

기 카고 도어는 전방(Forward) 카고 도어, 후방(After) 카고 도어, 벌크(Bulk) 카고 도어 등 모두 3개의 도어로 구성돼 있다. 카고 도어는 운항 중 안정성과 직결되는 동체 부분의 주요 복합재 구조물이다. 고도의 정밀성 및 도어 개폐를 위한 구동장치 설계 등 첨단 기술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한항공은 이번 계약으로 에어버스 및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와 3D 프린팅(Printing) 부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게 돼, 이를 토대로 항공기 부품 제작 기술력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클릭하면 집에 車 배달...기아차, 유럽서 시범운영

코로나 장기화로 대면 영업 한계  
글로벌 시장서 온라인 판매 확대  
獨 하반기부터 탁송 시작  
美 딜러도 연내 80% 플랫폼 구축

자동차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비대면 판매 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21일 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올해 범유럽 지역에 사용될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반기부터는 독일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차를 구매할 때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차종과 세부 사양을 선택한 뒤 결제 완료하면 차가 집으로 배달되는 방식이다. 다만, 구매 과정에 기존 딜러가 배제되는 건 아니다. 기아차 측은 "구체적인 상담과 집 앞으로 차를 탁송하는 과정에 딜러가 참여해 기존에 맡던 역할을 할 예정"

이라고 강조했다.

제조사 자동차를 직접 판매할 수 없는 미국에서는 딜러를 통해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전체 기아차 미국 딜러의 50%가 플랫폼을 갖췄고, 올해 연말에는 80%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아차는 이미 인도와 러시아에서는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중국에서도 상반기 중으로 시스템을 갖추기로 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판매를 글로벌 시장에서 점차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대차 역시 인도와 영국 등지에서 '클릭 투 바이(Click to Buy)'라는 온라인 판매 채널을 마련한 상태다. 다만, 아직 국내 도입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판매 플랫폼 운영에는 이미 다수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인도에서 메르세데스-벤츠는 'Merc from Home', BMW는 'Contactless Experience'라는 이름의 판매 플랫폼을 4월부터 운영 중이다. 혼다(Honda from Home)와 르노(Book Online Pay Later)도 비슷한 채널을 이미 구축했고 볼보, 마힌드라, 지프, 포드는 이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동차 업계가 연이어 온라인 판매에 적극 나선 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 제한이나 봉쇄 명령이 내려진 곳이 있어 완성차 업체가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기존처럼 딜러가 주도하는 대면 판매 방식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자 업체가 온라인 판매 채널 구축에 발 빠르게 나선 것이다. 대표적으로 인도에서는 3월 25일 국가 봉쇄 명령이 내려진 뒤 모든 공장 판매 대리점 운영이 중단됐고,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봉쇄 명령이 다시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객들이 비대면 구매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에 대비해 업계가 온라인 판매 채널을 미리 마련하려는 전략도 깔려 있다.

이상우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딜러와의 관계 설정이 완성차 업계의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gi@



송호성 기아차 사장, 수출선적부두 현장경영 송호성(가운데) 기아자동차 사장이 20일 평택항 수출선적부두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수출을 독려한 후 차량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기아차는 해외에서 고객 맞춤형 판매 프로그램, 딜러 지원,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송 사장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기아차

한솔홈데코

Hansol  
한솔홈데코

습기와 얼룩에도

# 강하다!

## 한솔sb마루

- ☼

**물과 습기 안심**  
한솔만의 특허기술로 변형이 거의 없어 주방 및 욕실 주위에도 안심
- ☂

**찍힘, 눌림 안심**  
무거운 물건에도 마루 표면이 깨지거나 눌림 자국이 생기지 않아 OK
- ☀

**외부 오염 안심**  
국내 최초 특수 표면처리 EB코팅 기술로 손, 발자국 등 얼룩 청소를 쉽게
- SEO

**인체 유해물질 안심**  
친환경 Super-EO 최고 등급, 아토피 안심 마크 획득으로 유해물질 걱정 끝

## 한화시스템, 필리핀 호위함에 첨단 전투체계 공급

한화시스템은 18일 출항한 필리핀 최신에 호위함 호세 리잘(Jose Rizal)에 함정 전투체계(CMS)를 성공적으로 탑재했다고 21일 밝혔다.

호세 리잘 함은 필리핀 해군의 2600톤(t)급 호위함이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이 함정에는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FFX Batch-II 급의 전투체계를 탑재했다.

전투체계란 함정에 탑재되는 다양한 센서, 무장, 기타 통신 및 지휘체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무기체계다. 한화시스템은

현재 자기 호위함인 FFX-III 함정전투체계를 개발하는 등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투체계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해군의 수상함, 잠수함 등 80여 척에 전투체계를 공급해왔으며 지속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여 세계 수준의 첨단 전투체계를 개발 및 양산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산 전투체계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기업 PR>

## 현대글로벌비스, 지역사회 공헌 활동 박차

### 홀몸 어르신 300가구에 선물꾸러미

현대글로벌비스가 지역사회를 밝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어려울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업의 바람직한 역할이라는 메시지가 새겨져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현대글로벌비스는 홀몸 어르신들께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그간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펼친 현대글로벌비스는 이번에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비대면 재택봉사를 펼쳤다.

최근 현대글로벌비스 직원들은 홀몸 어르신 300가구를 위한 컬러링 북(Coloring Book)을 각 가정에서 만들어 사업장(서울 본사·울산·평택) 인근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전달했다. 컬러링 북은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어르신들께서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심리방역 필요성이 커져 컬러링 북을 제작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컬러링 북과 함께 카네이션 꽃 화분을 전달해 어르신들의 기분 전환을 돕는 한편 코로나19로 판매량이 감소한 화훼농가의 어려움도 덜어줬다. 간편식(컵밥), 김 등으로 꾸러진 식료품 키트도 함께 전달했다. 이렇게 구성된 선물기



트는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집을 방문해 문 앞에 두는 방식으로 건넬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글로벌비스는 물류기업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 활동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힘썼다. 2월부터 3개월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각지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마련한 긴급 구호 물품(마스크·식료품 등) 1000여 톤을 200여 회에 걸쳐 신속하게 무상 운송한 것이다. 구호품은 자가격리지를 비롯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에게 전달됐다.

현대글로벌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봉사활동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어린이들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며 추억을 선사했고, 추석 명절에는 홀몸 어르신께 큰절과 마음이 담긴 선물로 온정을 나눴다.

현대글로벌비스 관계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 온기가 퍼지는 데 작지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온라인 학습을 응원하기 위해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1만 대의 스마트 패드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잠시 멈춘 학교  
처음으로 시행된 온라인 개학에 더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전국 15개 교육청과 함께  
저소득 소외계층 아이들의 온라인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  
1만 대의 스마트 패드를 지원합니다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학교로 돌아가는 날까지  
LG유플러스가 함께하겠습니다

# ‘찰떡궁합’ 카카오·크래프톤, IPO 기대감 솔솔

‘배틀그라운드’ 흥행 대박 이어 신작 ‘엘리온’ 시너지 기대  
카카오게임즈 1분기 호실적... 2년 만에 재상장 추진 발판  
크래프톤, 영업이익 엔씨·넷마블 제쳐... 내년 IPO 예상

온라인 배틀로얄게임 배틀그라운드로 동맹을 맺은 카카오게임즈와 크래프톤의 상장(기업공개·IPO)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배틀그라운드 대박에 이어 신작 게임 ‘엘리온’도 함께 서비스하기 때문에 시너지도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와 크래프톤이 1분기 호실적을 달성하며 상장 기대감이 높아졌다. 카카오게임즈는 1분기 영업이익 127억 원, 매출액 96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 5% 성장했다. 같은 기간 크래프톤은 영업이익 3524억 원, 매출액 5082억 원을 기록하며 각각 256%, 99% 증가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게임업계에서 넥슨에 이

어 2위에 해당하며 ‘빅3’로 꼽히는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을 제친 성적이다.

이 같은 호실적에 업계에서는 카카오게임즈와 크래프톤의 상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선 카카오게임즈는 주관사를 선정하고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게임즈는 주관사를 통해 예비심사 청구 전까지 실사를 진행하며, 상장 시점과 규모, 기업 가치 등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게임즈는 2017년 한국투자증권과 주관사 계약을 맺고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지만 비상장사 보유 지분의 가치 산정 방식이 발목을 잡아 2018년 상장 계획



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2년가량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몸집 불리기에 집중해 재상장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크래프톤 역시 내년 IPO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틀그라운드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흥행을 기록하면서 실적도 급증한 데다, 장

외 주가도 치솟고 있어 상장 기대감도 높다. 특히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이 IPO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상장 추진이 유력한 것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게임즈와 크래프톤이 증권가에 입성하면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사는 현재 ‘배틀그라

운드’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크래프톤이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국내에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양사는 신규 PC MMORPG ‘엘리온’도 함께 한다. 크래프톤이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게 되는 엘리온은 올해 안에 국내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외에는 흥행작이 아직 없지만 꾸준하게 성과를 거두고 있고 신작 효과까지 더해지면 시장 가치는 높아질 것”이라며 “카카오게임즈와 시너지 효과로 인해 양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양사는 상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상장과 관련해 아직 말씀드릴 게 없다”며 “대내외적 상황과 시기를 고려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크래프톤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성준 기자 tiatio@

## 방사광가속기 ‘빔 라인 증설·산업계 할당’ 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21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시중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첨단산업기술 확보 및 선도형 기초원천 연구를 위한 첨단 연구 인프라로서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기 구축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뤄졌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예상도.

협약식을 전후해 3개 기관은 사전 면담과 추진 현황 정보 공유, 충북도의 부지조성계획 및 지원 방안 발표 등을 통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로 했다. 특히 3개 기관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기 구축을 위한 정부-지자체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하고, 활용해 첨단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력은 △부지 확보 및 개발 △가속기 이용자 협의회 육성과 지원 △부지 내 관련 연구·산업 기반 마련 △가속기 중사 인력 주거 및 문화공간 조성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주 오창 사업지 선정 이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사업의 경제성을

과기부-충북-청주 업무협약  
빔 라인 증설 위한 예산 확보  
정부, 실험실 산업계에 배분  
업계, 사용시간 보장이 필요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타당성 조사는 사업비 규모 등을 사실상 확정,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방사광가속기의 활용도는 동시다발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공간, ‘빔 라인’을 얼마나 조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오창 방사광가속기의 초기 빔 라인 수는 10개 남짓이다.

하지만 10개 정도는 삼성전자가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의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수치다. 국가 연구 실험 등을 감안하면 최대 40개의 빔 라인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결국 국비나 지자체 매칭으로 투입되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빔 라인 확보 양이 달라질 수 있다.

가속기 활용 비중을 산업계에 30% 이상 어떻게 할당할지도 관건이다. 정부는 시설 관리 편의성을 위해 아예 이용할 수 있는 실험실 수를 학계와 산업계, 각각 7대 3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

반면 연구 인력은 실험실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도 과제다. 시설 관리를 대학에 의존했던 포항 가속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전문 인력 육성도 필요하다.

과기정통부관계자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국비 800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조 원을 들여 2027년까지 방사광가속기 및 부속시설을 갖추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라며 “신약 개발과 의학 등 기초과학은 물론 응용과학과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사업 성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 LG U+ ‘5G 기업전용망’ 서비스 출시

일반 상용망보다 데이터 전송속도 빠르고 성공률 높아

LG유플러스는 ‘5G 기업전용망’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5G 기업전용망은 점포·사무실·공장·금융영업점·제조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기기(센서, 로봇, PDA, 지능형 CCTV 등)나 업무용 단말(휴대폰, 태블릿 등)의 통신 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제공하는 전용 네트워크 서비스다.



LG유플러스 관계자가 충남 당진에 위치한 GS EPS 공장에서 5G 기업전용망 서비스를 통한 레벨센서 함체를 점검하고 있다.

장점으로는 △통신 속도 및 안정성 △서비스 커버리지(지역) 유연성 △트래픽 압축 기반의 보안성 △데이터 비용 절감 등이 꼽힌다.

일반 5G 상용망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와 성공률이 높아 안정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항만 크레인 조종이나 지뢰 제거용 굴착기 운용과 같이 정밀한 조작이 필요한 산업에 적합하다. 또 현장 및 제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센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실시간으로 수집해 불량품 자동 검수 등의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지원한다.

통신 서비스 제공 방식의 선택지도 다양하다. 사업장 환경에 따라 지정된 건물이나 일정한 지역 내에서 데이터를 쓸 수 있으며, 특정 단말을 장소 구분 없이 전국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가령 전국에 걸친 체인 점포에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류·영업·상담 현장과 같이 위치를 옮겨가며 태블릿PC 등의 단말을 활용할

수 있다.

5G 기업전용망은 보안성이 뛰어나 회사나 사업장의 정보를 전송하기에도 적합하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설명이다.

일반적인 5G 상용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서버와 교환기를 사용하고, 모든 트래픽을 암호화로 전송한다. 이 같은 폐쇄적 5G망에서는 사전 승인을 받은 단말기만 접속을 허가받을 수 있어, 공정 데이터의 료 차트·전자 청약과 같이 보안이 필수적인 데이터 처리도 안심할 수 있다.

유선망 대비 50%의 데이터 비용 절감 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5G 기업전용망은 와이파이가망이나 인터넷망 이용 시 들어가는 구축·유지·보수 비용을 덜 수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 중기부, 정부 부처 첫 ‘비대면 경제과’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정부 부처 최초로 ‘비대면 경제과’를 이달 25일부터 설치해 운영한다.

21일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대면 분야의 벤처·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 경제과’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기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신규 벤처투자자는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한 반면, 비대면 분야의 벤처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기업의 평균 고용도 37.8명으로 대면 분야의 27.2명보다 높았다. 벤처 투자 10억 원당 고용 인원은 비대면 분야가 5.5명으로 대면 분야(3.6명)보다 투자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비대면 경제활성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대면경제과’를 차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6개월간(필요시 6개월 연장, 최대 1년) 긴급 대응반으로 운영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주목받는 비대면 분야 생태계는 기존 기반 산업의 기업들이 아닌 혁신 벤처·스타트업들이 주역”이라며 “K-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투입 등을 통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주역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SGA, 다중 인증 솔루션 개발... ‘GS 1등급 인증’ 취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연택트(비대면)’가 사회 전 분야에서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소비 문화가 변화한 데 이어 공인인증서까지 폐지되면서 인증 관련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종합 IT기업 SGA는 인증 솔루션 ‘TrustAuth’를 개발, 최근 ‘GS 1등급 인증’을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연택트 시대의 대표 인증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다.

TrustAuth는 많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기존의 ID/PW 인증 체계를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면서도 쉽고 빠르게 고도화할 수 있는 다중 인증 솔루션 제품이다.

TrustAuth는 2차 인증 단계에서 각종 OTP 인증, 웹 기반 2차 PIN, 바이오 추가 인증이 가능하다. 또 계정 분실 시 복구할 수 있는 일회용 복구 코드까지 한 번에 제공하며 다양하고 강력한 인증체계를 구축했다.

도입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인증 서비스로 AaaS(Authentication as a Service) 형태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On-Premise 기반으로 직접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2단계 인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할 전망이다.

SGA는 2단계 인증이 보편화함에 따라 2차 인증 솔루션 시장도 확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 이커머스, 포스트 코로나 대비 '물류' 힘준다

황각규 부회장, 롯데온 발맞춰 진천 택배터미널 현장 점검  
신세계 쓱닷컴 경기 물류시설·쿠팡 로켓배송 전국망 속도  
마켓컬리 김포 센터 고도화 등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 대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팽창함에 따라 이커머스 업계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너도나도 물류 배송 서비스에 힘을 주고 있다.

업계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배송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이커머스의 최대 승부처라는 판단 아래 차별화된 물류 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2016년 77조 원에서 2018년 112조 원을 넘어섬에 처음 100조 시대를 열었고, 2022년에는 200조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전 국민을 온라인·모바일 쇼핑으로 끌어들이며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롯데지주는 황각규 부회장이 전남 충북 진천의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택배 메가허브(Mega Hub) 터미널 건립 현장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황 부회장은 이후 이전 물류센터도 방문했다. 진천 택배 메가허브 터미널은 하루 150만 박스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 롯데는 통상 건설 비용의 2배가 넘는 약 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2022년 완공 예정이다.

황 부회장의 택배 및 물류 사업 점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빨라질 이커머스 중심의 유통업 재편에 대비해 롯데온(ON)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롯데는 최근 5년간 200여 오프라인 점포를 줄이기로 한 계획을 코로나19 여파로 2년 내로 앞당겨 잡으면서까지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대신 진천 허브터미널 1·2층은 택배터미널을 넣고 3층은 대규모 물류창고로 만들면서 온라인 유통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황 부회장은 "코로나19로 택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진천의 택배 메가 허브 터미널은 적기에 잘 시작된 프로젝트로, 그룹 신사업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통 라이벌 신세계·이마트 역시 이커머스 시장 성장에 대비해 SSG닷컴의 물류 강화에 나섰다. 이마트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SSG닷컴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회사 이마트로부터 1조3118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투자금의 주요 목적은 물류시설 확충이다.

온라인 식품 강자인 SSG닷컴은 올 1분

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9% 늘며 코로나19 효과를 톡톡히 봤다. 올해 초 이마트가 제시했던 성장률이 25%임을 감안할 때 고무적인 성과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3월에는 배송이 주문을 따라잡지 못할 정도라는 점에서 물류 확충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경기권에 새로운 물류센터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SSG닷컴은 5년 내 7개의 물류센터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새벽 배송을 염두에 두고 4호 물류센터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물류 인프라에 집중했던 투자가 빛을 발하면서 수도권을 넘어 전국 물류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2014년 로켓배송 시작 당시 27개에 불과했던 물류센터는 지난해 말 기준 168개로 늘었다. 하지만 쿠팡의 '로켓성장세'를 고려하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최근 짓기로 한 물류센터 대부분은 경기권 밖에 위치해 지방권역의 '로켓배송' 수요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서 3200억 원 규모의 축구장 46개 넓이(약 10만 평 규모)의 초대형 첨단 물류센터를 조성해 전국 단위의 로켓배송 물류 거점으로 삼기로 계획을 알린 쿠팡은 이달 초에는 대전시에 600억 원을 투자해 첨단물류센터를 짓기로 했다. 대전 센터는 중부권 신선식품의 유통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사업 전망이 더욱 밝아진 마켓컬리도 물류 강화를 통해 몸집을 키우기로 했다. 이달 초 국내 스타트업이 유지한 투자 중 가장 큰 규모인 2000억 원 유치에 성공한 이 회사가 투자금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분야 역시 물류다. 마켓컬리는 늘어나는 수도권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말 오픈 예정인 김포 물류센터의 설비 고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검색엔진으로 쇼핑을 중개해 온라인 쇼핑 강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네이버는 택배사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CJ대한통운과 손잡고 24시간 배송 서비스를 내놨다. 기존에는 익일 배송을 위해 전날 오후 3시까지 주문해야 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늦은 밤 12시까지 주문해도 가능하다. 현재 대상은 LG생활건강뿐이지만, 다른 브랜드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남주현 기자 joo@



## 쿠팡, 亞 100대 유통사 19위에... 38계단 '쑥'

네이버·위메프 이커머스 약진... 롯데·현대 등 오프라인 기업 하락

한국 이커머스 기업의 저력이 확인됐다.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업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21일 발표한 '2020 아시아 100대 유통기업(Top 100 Retailers in Asia 2020)'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11개가 포함된 가운데 쿠팡, 네이버, 위메프 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특히 쿠팡은 38계단이나 뛰어오른 19위로 100대 기업에 신규 진입한 기업을 제외하고 가장 큰 폭의 순위 상승을 기록했다.

국내 기업의 명성은 엇갈렸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순위가 하락한 반면 이커머스만 순위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을 아시아 유통 맹주의 자리를 올해도 지켰다. 알리바바와 징둥닷컴이 나란히 1·2위에 올랐고 10위권 내에 4개 기업이 중국 기업일 만큼 아시아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했다. 한국 기업 중에는 10위권 내에 롯데(9위), 신세계(10위)가 이름을 올리며 체면치레를 했다. 신세계는 이마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순위변동이 없었지만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은 롯데는 8위에서 9위로 순위가 밀렸다.

이커머스의 약진은 쿠팡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100대 유통기업에 새로 이름을 올린 네이버, SK텔레콤 등도 이커머스를 기반으로 성장한 사례다. 네이버는 네이버쇼

아시아 100대 유통기업 (단위: 억 달러, 2019년 기준)

순위	기업	매출	순위	기업	매출	순위	기업	매출
1	알리바바	3171.76	7	핀두위투위(신규)	386.08	30	현대백화점(▼7)	103.45
2	징둥닷컴	2156.19	8	월마트(▼1)	329.56	32	네이버(신규)	84.93
3	세븐&아이 홀딩스	809.91	9	롯데그룹(▼1)	255.38	38	홈플러스(▼6)	72.21
4	이온그룹	693.10	10	신세계	249.70	40	BGF리테일(▼4)	72.04
5	쑤닝닷컴	471.57	19	쿠팡(▲38)	142.59	41	SK텔레콤(신규)	72.04
6	아마존닷컴	389.92	25	GS홀딩스(▼1)	114.94	62	위메프(▲10)	52.10
						83	CJ ENM(신규)	37.28

핑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신규 진입하면서 32위에 이름을 올렸다. SK텔레콤은 41위, CJ ENM은 83위였다.

위메프는 한국 기업 중 쿠팡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 상승을 기록했다. 위메프는 62위로 지난해 순위보다 10계단이나 뛰어올랐다.

지난해 아시아 100대 유통기업에 한국 기업은 10개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1개로 기업 수가 늘었다.

아시아 시장에서 이커머스의 영향력도 한층 커졌다. 10대 유통기업 중 절반인 5개가 이커머스 기업이었고 오프라인 비중이 높은 기업은 롯데, 신세계를 비롯해 이온그룹, 세븐&아이홀딩스, 월마트 등이었다. 최근에는 롯데ON이 본격 출범하고 신세계도 SSG닷컴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

하면서 온라인으로 체질개선이 한창이다.

국내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이 거둔 성적은 초라했다. 현대백화점이 7계단 하락해 30위권에 겨우 턱걸이했고, 홈플러스도 6계단이나 뒤로 밀린 38위에 랭크됐다. 롯데, GS, BGF리테일 등도 줄줄이 순위가 밀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까지 이커머스에 뛰어드는 이유는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이라며 "코로나19로 언택트 수요가 늘면서 올해 이커머스 성장은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순위를 집계한 것으로 면세점과 호텔업, 제조업의 매출을 제외한 순수 유통부문 매출만으로 산정한 것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의류·먹거리·화장품까지... PB 늘리는 백화점

신세계, 스킨케어 '오노마' 론칭... 콘텐츠 차별화·신성장동력 기대

백화점 업계가 기획부터 생산, 판매까지 책임지는 PB(자체표) 상품을 잇달아 론칭하고 있다. 흥행에 실패하면 개발비, 재고 부담 등 손실을 떠안게 되지만, 흥행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어 업계의 PB 브랜드 제작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차별화 전략으로 색다른 콘텐츠를 추구하는 추세에 따라 PB 상품은 백화점 업계의 신성장 동력이 되기도 한다.

신세계백화점은 기간 패션·잡화 관련 PB 상품을 론칭한 데 이어 이번에는 화장품 시장에 발을 들였다. 신세계는 신규 스킨케어 브랜드 '오노마(onoma·사진)'를 22일 론칭한다고 21일 밝혔다. 브랜드 기획부터 제조까지 신세계가 직접 준비한 첫 K뷰티 브랜드다.

오노마는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 탄생했다. '백화점 소비자는 백화점이 가장 잘 안다'는 말처럼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신세계의 화장품 편집숍 '시코르'와 온라인몰 SSG닷컴에서 판매한다.

백화점 업계에서 가장 먼저 PB 상품을 선보인 곳은 롯데백화점이다. 롯데

백화점은 2005년 해외 하이엔드 디자이너 브랜드 '엘리든'을 시작으로 국내 디자이너 의류 편집숍 '파스스', 니트 전문 브랜드 '유닛', 해외 브랜드 편집숍 '탑스', 아이웨어 브랜드 '뷰', 반려동물 편집숍 '집사', 베이커리카페 '여섯시오븐' 등 12개 PB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에는 의식주 토틸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시시호시'까지 선보였다. 시시호시는 다음 달 인천터미널점에 2호점 오픈을 예고했다. 내년 3개 점포를 더 오픈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측은 "차별화된 브랜드와 상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합리적 가격에 좋은 품질의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PB 상품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도 2018년 10월 의류 자체 브랜드인 '1온스(1oz)'를 통해 내·외용고산 캐시미어 100%를 사용해 만든 머플러 아이템을 판매했다. 동일 제품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성비를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판교점 지하 1층에 더마 코스메틱 전문 편집숍 '코스메플레이스'를 론칭해 운영 중이다. 코스메플레이스에서는 '셀룸', '오가나셀' 등



피부과 전문가가 직접 연구 개발한 화장품뿐만 아니라 유럽 약국 화장품으로 잘 알려진 '더미나', '알골로지' 등 더마 화장품 브랜드 40여 개를 판매하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도 2017년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의 PB상품을 시작으로 가정간편식(HMR) 브랜드로 확장한 '고메이494'를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신규 출시 제품으로 △강진맥우장조림과 설렁탕 △생선구이 HMR 4종 △착즙주스 2종 등을 론칭했다.

업계 관계자는 "PB는 차별화 콘텐츠를 추구하는 유통업계의 관심 분야다. 스테디셀러를 보유하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표"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달콤한 캘리포리아산 체리** 이마트가 28일까지 미국산 체리 한 팩(400g)을 7900원에, 두 팩 구매 시 3000원 할인한 1만2800원에 판매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저렴한 수준이다. 올해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일조량이 풍부해 생육기에 햇빛을 충분히 받아 체리 당도가 높아졌다. 사진제공 이마트

# 코스닥벤처펀드 풋옵션 시한폭탄 ‘짜각짜각’

〈조기상환〉

무역분쟁·코로나에 수익률 악화  
신규 상장사 대부분 ‘자금난’  
‘돌려막기식’ 자금 확보 나서  
“정부, 시장 활성화 정책 실패”

조달을 목적으로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 37개사(6.03%)도 같은 이유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메자닌 조기상환(풋옵션) 행사 시점이 다가오면서 일부 상장사들이 ‘돌려막기식’ 자금 확보에 나서 는 모습이다.

코스닥벤처펀드는 2018년 4월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정부 주도하에 조성됐다. 신규 상장사의 공모주나 벤처기업의 메자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에 전체 투자금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게는 IPO(기업공개) 우선배정, 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유망 중소기업을 키운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펀드에 속한 다수의 상장사가 자금 경색에 시달리면서 사실상 시장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 19로 실적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투자금 유치를 위해 상장사들이 찍어 낸 메자닌(3년 만기, 2년 풋옵션)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태훈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벤처펀드 출시와 함께 메자닌 발행량이 급증했는데 발행 후 2년이 지나 올해부터 첫 번째 조기상환 청구일이 다가온다”며 “풋옵션 행사로 자금 조달 수요가 몰릴 수 있는데 만기 도래액은 6월과 7월 각각 약 9000억 원과 7000억 원으로 평월에 비

해 많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코스닥벤처펀드 10개(설정액 512억 규모)를 운용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환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풋옵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자금 확보도 문제지만 이후 주식 전환으로 인한 오버행(과잉 대기물량) 이슈도 우려해야 한다.

연초 이후 자금 유출과 수익률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올해 63개 코스닥벤처펀드(공·사모 포함)에서 총 410억 원의 자금이 유출됐다. 설정액과 순자산은 각각 4664억, 4525억 원 수준이다. 수익률은 평균 2.58%를 기록 중이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가 5.15%

오른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치다.

펀드별로는 ‘라임코스닥벤처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S-1C-A’(-23.63%), ‘라임코스닥벤처80전문투자형사모1C-A’(-19.01%), ‘라임스마트코스닥벤처투자전문투자형사모1C-A’(-16.71%), ‘브레인코스닥벤처(주)C-A’(-11.54%), ‘유티머스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1’(-8.44%) 등이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벤처펀드 설정액은 이미 감소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재 코스닥 시장 여건 대비 메자닌 시장은 다소 과열된 상태기 때문에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수급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거래소, 지수 구성종목 27일 발표  
한진칼·포스코케미칼 편입 전망  
유진테크, 신라젠 자리 차지할 듯

## 6월 정기변경 교체 예상 종목군

코스피200	편입	한진칼, 포스코케미칼, F&F, 지누스, 아시아나항공, 화승엔터프라이즈
	편출	효성중공업, 쌍용차, 현대리바트, 한라홀딩스, JW홀딩스, 동양, 한국단자

\* 출처: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

수산물 방법론이 기존과 달라지면서 10~12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측이다.

증권사들은 공통으로 한진칼, 포스코케미칼, F&F, 지누스, 아시아나항공, 화승엔터프라이즈 등을 코스피200에 새로 편입될 종목으로 뽑았다. HMM, KG동부제철, 태영건설, 롯데관광개발, 쿠팡, 더블유게임즈 등도 증권사 2곳 이상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효성중공업, 쌍용차, 고려제강, 현대리바트, AK홀딩스, 한라홀딩스, 한국셀슈유, JW홀딩스, 동양, 한국단자 등은 이번 정기 변경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큰 종목들로 분류됐다.

코스닥150도 14~15개 종목 변경이 예상된다. 아이티엠반도체, 차바이오텍, 셀리버리, 이베스트투자증권, 유비쿼스홀딩스, KH바텍, 네오위즈, 상상인 등이 편입

유력 후보군이다. SK바이오랜드, 브이티지오피, 아모그린텍, 코윈테크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코스맥스엔비티, 태웅, 이엠코리아, 우리산업, 강스텝바이오텍, 세종텔레콤 등은 이번 정기 변경서 편출이 예상된다.

몇몇 종목은 지수 편출입 여부가 불확실해 오히려 시장의 주목을 더 끌고 있다.

유진테크는 신라젠이 대표이사 구속 관련 상장지수 편입 여부 파로 코스닥150서 편출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신라젠이 코스닥150에서 편출된다면 수혜종목은 유진테크”라며 “기존에는 유비쿼스홀딩스의 정보기술 산업군 변경으로 편입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라젠 제외로 잔여종목 선정 단계에서 편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코스피200지수 편입을 노리는 KG동부제철도 증권사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은 편입을 예상하고 있지만, 유안타증권은 꼭 집어 편입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 실적 개선에도 유동부채 ‘급증’

### 한계기업 돋보기

#### 아리온

아리온이 상장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부채비율이 최고치를 찍으면서 한계기업 탈출에도 실패했다. 회계감사의 견거절에 이어 경영진 갈등 심화 등 소송전이 잇따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리온의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5억 5332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작년 1분기 10억 원에서 올해 3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가 급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 역시 25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실적을 개선하기도 했지만, 한계기업 탈출엔 실패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흑자를 유지했지만 2016년 급격한 실적 악화를 겪었다. 영업이익(연결기준)은 2015년 18억 원→2016년 -89억 원→2017년 95억 원→2018년 -5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실적은 21억 원으로 적자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늘어난 이자발생부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2016~2018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을 기록하면서 한계기업 리스트에 올랐다. 2015년 55배였던 이자보상배율은 2016년 -21배→2017년 -7.8배→2018년 -1.4배로 악화됐다. 지난해 0.4배로 개선세를 보였지만 4년 연속 1 미만 상태다.

이처럼 부채는 최근 5년간 급증세를 보였다. 부채비율(연결)은 2016년 113%→2017년 200%→2018년 204%→2019년

### 아리온 주요 재무지표 추이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매출액	459	330	6
영업이익	-59	21	-37
부채비율(%)	204	348	454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 작년 영업이익 21억... 적자 탈출 부채비율 5년 연속 늘어 348%

348%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특히 유동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동부채비율은 2017년 162%에서 2018년 69%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274%로 뛰었다.

지난해 단기사채는 전년 26억 원에서 353억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금 마련 목적 등 사채 발행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2월에도 관계사 투자를 위해 사채 발행에 나서기도 했다.

관계기업 투자 규모는 2019년 말 158억 원에서 2020년 1분기 228억 원으로 집계된다. 이에 본업 악화 속에서도 무리한 관계사 투자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아리온은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으며 현재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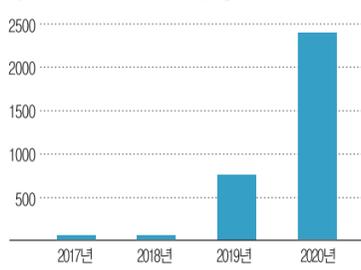
올해 내부 경영진의 잡음도 이어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현 경영진의 반대편에서 경영진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현 대표는 이에 맞서 전임 사내이사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 상장사 자금조달 ‘보릿고개’... ‘공모’로 넘는다

코로나 사태 ‘유증·회사채’ 막혀  
‘공모메자닌’ 발행 마지막 선택  
올 들어 2402억... 3년치 넘어  
현대로템 첫 CB 발행 영향 커

### 공모 전환사채(CB) 발행액 (단위: 억 원)



2017년 61억 원으로 쪼그라들었고, 2018년과 2019년도 각각 64억 원, 758억 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사모방식으로 발행된 CB 규모는 3조~5조 원이 넘는다.

공모 CB 발행액 급증은 3월 말 장사 이래 처음으로 메자닌을 공모 형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한 현대로템 영향이 컸다. 만기 3년에 수익률은 3.7% 수준으로, 전환가액은 9750원이다.

대기업 계열사는 보통 주주 유상증자나 회사채·기업어음(CP)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선택이다. 이는 4월 한국기업평가가 현대로템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하면서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진 영향이다.

◇리임 사태·코로나19로 자금조달 위축... 투자자 우위 상품 인기 = 이 같은 현상은 과거 발행사 우위로 돌아가던 메자닌 시장이 투자자 우위로 차츰 변화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이미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사모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만기가 짧아지고, 제로금리 CB도 줄어드는 등 과열됐던 메자닌 시장이 진정세로 돌아가는 기조였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 전부터 재무사정이 좋지 않았던 한계기업은 사모 메자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공모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내역을 기준으로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00개 중 3개는 단기적인 자금압박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등급 BB+이하 B-이상의 투자주의 기업은 투자적격(신용등급 AAA이하 BBB-이상) 기업보다 현금 소진 위험이 3배 이상 높았다.

노우리 기자 we1228@

기업들의 주요 자금 조달창구 기능을 해 온 메자닌 투자 시장에서 변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모 전환사채(CB)가 주를 이루던 예전과 달리, CB(전환사채)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라임 사태 이후 메자닌 발행 여건이 이전보다 엄격해진 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유상증자나 회사채 등 자금조달 시장도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마지막으로 공모 메자닌을 통한 자금조달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늘어나는 공모 메자닌 발행 기업 = 21일 코스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따가 발행된 공모 CB 발행액은 2402억 원으로 이미 지난 3년치를 넘어섰다.

2015~2016년까지만 해도 3000억 원을 훌쩍 넘는 규모로 발행되던 공모 CB는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0년 5월 21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등락률(%)
비트코인캐시	288,100	-7,000	(2.4%▼)
리플	242	-4	(1.6%▼)
라이트코인	53,100	-1,550	(2.8%▼)
대시	93,000	300	(0.3%▲)
모네로	84,850	1,450	(1.7%▲)
비트코인골드	10,780	-230	(2.1%▼)
이더리움 클래식	7,755	-230	(2.9%▼)
퀀텀	1,886	-22	(1.2%▼)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 뱅

고반발 클럽 설계 기술과 경량화 기술은 이미 타사와 **초격차의 기술 우위** 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st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우드 + 3rd Shot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100yd 증가

PAR 5 3rd shot 까지 합계

# 뱅크골프클럽으로 100yd 더나가도록 세계적인 프로들이 도와드립니다!

클럽구매 선택에서부터 클럽스펙수정, 필드 레슨까지

최대의 비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골퍼에게 **최적화된 스펙의 클럽**이 필요합니다

레슨실력과 첨단 과학적 프로그램으로 스윙분석을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골프 클럽 지식까지 겸비한 세계 BEST 100프로**가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김주미 (LPGA 1승, KLPGA 3승, KLPGA대상/최우수선수상/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SBS골프 방송), 김혜윤(KLPGA 5승, SBS골프아카데미방송, KLPGA K10클럽 수상), 박소영 (KLPGA 3승, 국가대표 코치), 송보배 (LPGA1승, JLPGA 2승, KLPGA 5승, LET 1승, KLPGA대상/상금왕/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방송), 송경서 (JTBC골프 해설위원/라이브레슨 방송), 양제윤 (KLPGA 2승, KLPGA 대상), 이병윤 (JTBC골프 라이브레슨, 수원여대 골프교수), 이지영 (LPGA 1승, KLPGA 2승), 이현 (JTBC골프 라이브레슨, 경찰대/경성대 골프교수), 염동훈 (KPGA 최우수지도자상, 주니어선수/투어프로 코치 선호도1위), 장활영 (SBS골프/JTBC골프 중계, 한국골프대/가천대 골프교수), 조영란 (KLPGA 2승), 최우리 (KLPGA 1승, KLPGA 최우수선수상, SBS골프/MBC 방송), 허석호 (KPGA 2승, JGTO 8승, KPGA대상,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베스트 교습가 1위, SBS골프아카데미 방송), 문현희 (KLPGA 2승, 인하대 스포츠심리학 박사수료, SBS골프 및 JTBC레슨 방송), 이정연 (KLPGA 1승, KLPGA 신인상, 우수선수상, 한국골프대학 교수, SBS골프 레슨방송, LPGA 9H 최저타수 28타), 이승호 (KPGA 6승, JGTO 신인상), 김나리 (JLPGA 2승), 신준 (미 PGA Certified Professional, JTBC골프 레슨 방송, JTBC골프 해설위원)



세계 어느 기업도 도전하지 않고 따라 하기도 힘든  
최적화 기술을 실현 시키고 있습니다

- 드라이버를 100m밖에 못 보내는 분도 쉽게 스윙 할 수 있는 타사 대비 30% 더 가벼운 무게의 클럽부터 400m장타자가 사용하는 무거운 클럽까지
- 아주 부드러운 R6강도의 샤프트로 된 클럽부터 3X강도의 강한 샤프트로 된 클럽까지

999,000가지 스펙중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클럽을  
PGA 정상급 프로가 사용하는 클럽을 제작해주는 시스템 그 이상으로 VIP 고객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적화된 뱅골프 클럽으로 100대 프로의 필드 레슨 신청 접수중 |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있는 프로 피터, 골프 클럽 전문가 모집중



(주)뱅크골프코리아

대표전화 1544-8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 1층

www.bangolf.co.kr



### ‘과천주공 재건축 막차’ 8·9단지 추진위 설립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8·9단지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완료하면서 과천 주공아파트 12개 단지 모두가 정비사업을 마치거나 본격 추진에 나서게 됐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과천 주공8·9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20일 과천시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다. 주민 동의율은 약 52%다.

주공8·9단지 재건축사업은 약 13만7000㎡ 땅에 들어선 2개 단지 2120가구 자리에 최고 35층, 3311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과천 주공 재건축 사업의 막차인 셈이다. 주공8단지와 9단지는 각각 1400가구, 720가구 등 총 2120가구로 이뤄졌다. 이들 단지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3311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로 탄생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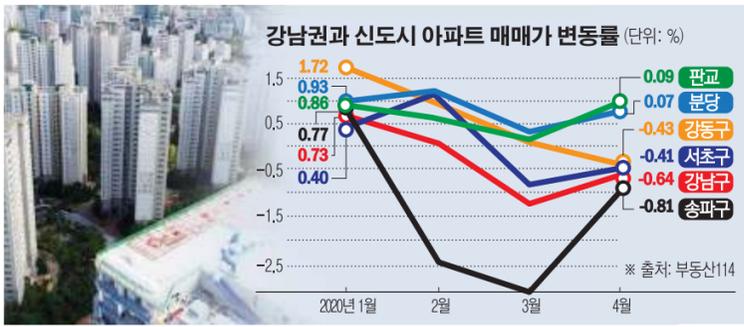
문선영 기자 moon@

# “강남 안 부러워”... 판교·분당 집값 고공행진

지난해 7·8월부터 꾸준히 상승 강남과의 격차 좁히며 맹추격 ‘판교푸르지오’ 잠실보다 비싸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처럼 쾌적한 공원 생활권과 교통망, 의료·교육·문화 등의 인프라를 두루 갖춘 경기도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들 신도시 내 대장주로 꼽히는 아파트 단지들의 몸값은 서울 강남권의 웬만한 아파트 시세보다 더 비싸졌다.

한국의정원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강남권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4월 한 달간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0.64% 떨어졌다. 서초구는 0.41%, 강동구는 0.43% 각각 하락했다. 송파구는 0.81% 빠지면서 가장 큰 하락률을 나타냈다. 3월에



도 강남구는 0.14%, 서초구는 0.08%의 하락률을 보였다. 송파구의 경우 2월 0.24%, 3월 0.30% 하락에 이어 낙폭이 커지는 중이다. 종부세 강화 등 정부가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쏟아낸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반면 분당과 판교신도시 아파트값은 탄탄한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분당은 지난해 7월부터, 판교는 지난해 8월부터 아파트 매매가가 계속 올라가는 중이다. 올해 들어 분당은 1월 0.93% 오른 데 이어 2월엔 1.1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판교

도 1월 0.86%, 2월 0.66%로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이처럼 강남4구와 분당·판교신도시 아파트값이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면서 이들 지역 간 집값 차이도 점차 좁혀지고 있다.

강남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3월 5691만 원에서 4월 5654만 원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5158만 원에서 5136만 원으로, 강동구는 3144만 원에서 3131만 원으로 각각 내려갔다. 송파구도 4097만 원에서 4059만 원까지 떨어졌다. 반면 판교신도시는 3551만 원에서 3554만 원으로 오르면서 강동구를 넘어

송파구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실제 비슷한 평형의 아파트 매매값이 역전되는 거래 사례도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달 15일 판교신도시 대장아파트로 꼽히는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51㎡형은 24억5000만 원에 팔렸다. 앞서 2월에도 24억3000만 원에 거래된 데 이어 다시 24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반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전용 119.93㎡형은 지난달 24억 원에서 이달 초 21억9000만 원으로 거래가가 2억1000만 원 급락했다.

신분당선은 판교와 광고 등 수도권 신도시와 강남을 위시한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황금노선으로 불린다. 현재 수원 판교역에서 판교를 지나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은 2022년 신사역, 2025년 용산역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올해 초 광고·호매실 연장은 사업 추진 14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용산·은평·삼송을 연결하는 서북부 연장안도 추진 중으로 수도권 핵심 교통망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DOUZONE**  
더존비즈온

www.wehago.com

대한민국 기업을 위하고!  
원격근무 성공을 위하고!

## 재택근무 통합패키지 무상제공

- 본 서비스는 ICT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기간: 2020. 06. 30까지)
-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의 소통과 협업에 특화된 12가지 서비스만 선별하여 업무 단절이나 보안 문제 없이 효율적인 원격근무 통합패키지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 WEHAGO 홈페이지(www.wehago.com)에서 신청하시고, 회원가입 후에는 바로 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WEHAGO**

빈틈없는 재택근무를 위한 12가지 무상제공 서비스

원격접속, 화상회의는 물론 심지어 팩스, 문자서비스(세종텔레콤 협력)까지 무료! 한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 업무환경을 12가지 서비스가 그대로 구현해줍니다.

<b>내 PC 원격접속</b>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의 서버 또는 PC에 접속하여 원격 작업을 하며 일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원격 PC의 자료를 관리합니다.	<b>채팅&amp;메신저 (WE톡)</b> 조직과 업무 단위로 그룹 대화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와 파일을 공유하고, 즉시 화상회의, 투표, 알림, 캘린더 등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용 메신저입니다.	<b>화상회의</b> 국·외 해외 어떤 지역이라도 PC와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화상회의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b>문자서비스</b> 거래처, 연락처와 연계되어 고객 및 거래처 그룹을 관리하고 대형 일괄 발송 등 많은 기업/마케팅 마케팅 도구를 제공하는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입니다.
<b>팩스</b> 팩스기 없이도 인터넷 팩스를 통해 수신되는 팩스 내용을 읽고 팩스 보내기 확인하고,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b>메일 (IG)</b> 개인 메일은 물론, 회사 메일까지 활용할 수 있고, 간편하게 회사의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용 메일 서비스입니다.	<b>전자결재</b> 기기에 필요한 다양한 결재 양식을 제공하고, 모바일과 PC를 통해 비대면 보고가 가능하며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b>웹오피스</b> 판교, 영월, 피원연호, 현대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웹 오피스입니다. 이제 설치해서 쓰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WE드라이브 (10G)</b> 회사 내 파일과 문서를 동료들과 쉽게 공유하고 검색하며, 웹 오피스를 통해 편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용 파일저장소입니다.	<b>일정관리</b> 일정 초대와 공유를 통해 동료들과 업무 일정을 공유하고, 일정과 관련된 일정, 차출, 출퇴근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협업합니다.	<b>할일관리</b> 해야 할 업무, 진행 중인 업무, 종료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하는 차이를 업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b>기본정보관리</b> 조직도를 통한 직할관, 수많은 거래처, 연락처의 통합관리 및 자동업데이트/공유,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 등 기본정보 관리 기능이 제공됩니다.

##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전분주택 개관

1438실 규모 주거형 오피스텔  
26일 청약 접수, 내달 3일 발표

시티건설이 서울 공공택지인 양원지구에 들어서는 주거형 오피스텔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전분주택을 22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신내역 시티프라디움은 총 1438실의 주거시설과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로 이뤄졌다. 건축법상 오피스텔로 분류되지만, 아파트 평면처럼 구성된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트) 단지다. 이번 분양은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1차 주거분으로 주거형 오피스텔 지하 4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 40~84㎡ 총 943실 규모다.

단지는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지난해 말 개통한 지하철 6호선 신내역과 경의중앙선 양원역이 도보권에 있다. 이로써 왕십리, 청량리, 용산, 홍대입구, 합정, 디지털미디어시티 등 서울 주요 도심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풍부한 생활 및 교육 인프라도 눈길을 끈다. 인근에는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 쇼핑시설과 함께 서울의료원, 삼부그린 스포츠센터 등의 각종 생활편의 시설이 들어서 있다.

또 동원초, 송곡여중, 송곡여고, 송곡고 등이 도보 거리에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1곳이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다.

26일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3일이다. 정당 계약은 같은 달 4~6일 3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3년 11월 예정이다.

문선영 기자 moon@

## ‘광주 초월역 한라비발디’ 내달 분양

전용면적 62~84㎡ 1108가구  
분당·판교·강남 등 이동 편리

한라는 경기 광주 초월읍 일대에 조성하는 ‘광주 초월역 한라비발디’ 아파트를 내달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2층 13개동 전용면적 62~84㎡ 110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주택형이 전체 물량의 50%를 차지한다.

광주 초월역 한라비발디는 성남·장호원 간 지방도로와 광주~원주 고속도로(초월 IC)가 인접해 경기도 판교와 성남, 분당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도보 10분 거리인 수도권 전철 경강선(판교~여주) 초월역이 있다. 초월역에서 4정거장 떨어진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하면 서울 강남역까지 50분이면 닿는다.

내년 착공하는 월관선(인천 월곡~판교)이 2025년 개통하면 과천과 안양, 시흥 등을 거쳐 인천 송도국제신도시까지 이동하기 쉽다. 경강선은 2023년까지 동쪽으로 수원까지 연장될 예정이어서 강원도 강릉까지도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동탄) 성남역이 이매역과 판교역 사이에 들어설 예정이다.

쌍둥초등학교(가칭)가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다. 단지 서쪽으로 백마산, 동쪽으로 곤지암천이 자리하고 있다.

광주 초월역 한라비발디는 광주 초월읍 일대에서 13년 만에 나오는 새 아파트인 데다 대단지로 조성돼 일대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 확대 조치에서 제외돼 규제 풍선효과와 역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분주택은 경기 광주시 역동 일대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3년 2월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법원 “현대건설 입찰서류, GS건설에 공개하라”

## 삼척발전소 손배소송 새 국면

두 회사 공동수주 후 사업 분쟁  
GS “저가 입찰... 자료 공유 안해”  
1000억 규모 2심 영향 미칠 듯

GS건설과 현대건설이 공동 수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사업 분쟁으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시 입찰 관련 서류를 공개 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문서 제출명령에도 현대건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온 만큼 이번 판단이 항소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GS건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입찰설계서·세부내역서·견적서 등의 열람·등사(복사)와 24개 항목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은 2010년 6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1·2호기 보일러 구매 사업에 공동수주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참여했다. 삼척그린

파워발전소는 2016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대형 발전소다.

컨소시엄 대표사인 현대건설은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1년 6월 남부발전과 삼척그린파워발전소 1호기 보일러를, 2015년 6월에는 2호기 보일러 사업을 공사대금 합계 1조1500억 원에 공사를 수주했다.

GS건설은 현대건설과 공사 운영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에 최초 입찰서 관련 서류(가격입찰서, 기술입찰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나 현대건설은 FW의 기술제안서와 물량 자료, 수정입찰서만 제공하고 가격입찰서는 보내지 않았다.

또 GS건설이 실행예산 검토를 위해 상세내역서와 수량산출서 등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했지만, 현대건설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설상가상으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공사의 선행 공정이 지연되면서 공사 기간이 6개월 연장되고, 애초 예산을 넘어서는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GS건설은 “현대건설은 입찰금액과 도급금액 산정 업무, 공사 기간 산정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적자가 명백히 예상되는 저가 입찰을 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의 이익에 반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거나 의사결정 과정 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GS건설의 청구를 전부 각하 또는 기각했다. GS건설이 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GS건설은 1심이 진행되는 도중인 2018년 11월 현대건설을 상대로 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냈다. 이는 GS건설이 2015년 12월과 2016년 3월, 같은 해 7월 관련 서류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현대건설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관련 소송의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간접 강제를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반행위 1일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5**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올 첫 수능 모의평가**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21일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답안지에 이름을 적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올해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다. 이번 시험은 희망하는 학교만 참여한다. 전국 2365개교 중 1835개교가 응시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 교육부 “수능 추가 연기 없다”

순차 등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교육당국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이달 27일로 예정된 순차 등교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능 추가 연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능 등 대입 일정이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월 18일 “수능을 추가 연기하고 대학 개학을 늦추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수능을 2차례 미룬 상태라 더 이상의 수능 연기 검토는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달 27일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개학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27일에는 고2, 중3, 초1~2학년과 유치원생들이, 6월 3일에는 고1, 중2, 초3~4학년이, 6월 8일에는 중1, 초5~6학년이 학교에 간다.

고3 등교 수업 첫날인 20일 자가격리 등

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한 학생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전국 고3 학생 44만2141명 중 2만1191명(4.8%)이 등교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출석률은 95.2%”라고 밝혔다.

이날 등교 수업은 전국 고등학교 중 96%인 2277개교에서 이뤄졌다. 나머지 86개교에서는 등교 수업 대신 원격 수업이 진행됐다. 등교하지 않은 학생 2만1191명 중 치료 및 자가격리 등을 이유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115명, 등교 전 자기진단에서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등이 있어 등교하지 않은 경우(등교 중지)가 2099명이다.

등교 후 발열검사 등에서 증상을 보인 학생은 737명이다. 이외에 ‘가정학습’ 사유로 등교를 하지 않기로 한 학생이 1187명으로 확인됐다. 이날 진단검사를 받은 고3 학생은 총 1257명이다. 이 중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20일 오후 4시 기준 기준 1명이며, 음성 판정을 받은 학생이 616명, 검사 진행 중인 사례가 640명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 대법 “상가 로비 무단 점거는 부당이득”

“반환 요건 충족” 기존 판례 뒤집어

상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다른 소유주들이 사용할 수 없게 했다던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공용부분이 임대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소유주들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본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전합은 21일 A상가관리단이 B 씨를 상

대로 제기한 건물임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A상가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복도, 로비에 퍼팅연습시설을 설치해 사용했다. 상가관리단은 B 씨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은 복도, 로비를 인도하고 점유·사용 기간에 대한 차임에 해당하는 2억3900여만 원의 부당이득반환

을 청구했다.

그러나 전합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구분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해당 공용부분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됐으므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요건이 충족됐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전합은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자가 이익을 누렸는데도 부당이득을 부정한다면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인 공평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5월호 발매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y Life  
Monthly Magazine  
2020. 05  
무엇이 더 좋고 어떻게 될지 모르나?  
**VIRUS**

**COVERSTORY 바이러스의 진실**

PART1. 코로나19로 물든 봄에 드리고 싶은 말씀  
PART2. 바이러스를 둘러싼 19가지 궁금증  
PART3. 두 얼굴의 바이러스, 현명하게 마주하기  
PART4. 바이러스 퇴치 면역력이 담이다  
PART5. 허구가 만들어진 '제2의 바이러스'

**신라산과 만남 사랑**

높은 소년  
가수 이경조의  
자유로운 영혼처럼...

우리 노래의 길을 잇는  
국악인 강영림  
대한민국 단 해·의 소리로  
거둔다기 위한 여정

주얼리계  
실과 스토리를 새겨 넣다  
헤어에서 더 빛나는  
보석 디자이너 김영희

**다들 어쭙  
눈앞질러  
눈앞질러  
눈앞질러**

**김혜영의 느린 여행**  
**목호동대마을의 추억 앨범 '눈앞질러'**  
시집 '목호동' 읽고 목걸이를 안 마실 수 없다는  
선배의 SNS 글을 보고, 기억 속 목호동을 떠올렸다.  
목호동대마을의 비좁고 기차편 골목 골에서 마주했던  
김부은 배다. 슬레이트집 담벼락에 그려진 소박한  
벽화들. 목호동대 특일 민박집에서 청문으로 감상했던  
목호의 방 풍경들. 유난히 목호에 끌리는 건, 왜일까.  
좋은 건 이유가 없다더니 목호가 그랬다.

**생생 부동산 현장 주거·상업·행정 갖춘 탄탄한 입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차통팔달' 교통  
호재를 비롯해 다양한 개발 운동이 불고 있는 것.  
다산신도시의 주택과 상권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 살펴봤다.

**고수열전**

**삶을 통째로 긍정 못할 게 없다**  
종교를 뛰어넘는 곳에 예술이 있을 것이다. 예술이란  
자유로운 정신의 산물이며, 그 어떤 권능에도 휘둘리거나  
고리치지 않는 자율적 행위이며, 그러나 자유 혹은  
자율을 근간으로 삼기가 쉽지가 않다. 예사 소림이 꼬이고  
뒤엉켜 좁은 세계에 갇히는 게 사림이다. 신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 위안을 구하고서도 돌아서면 외로워 보채는  
게 사림이다. 도들이표처럼 자주 되돌아오는 자문은 하나.  
너는 누구인가?

**시니어 반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영양 만점 달걀로 채운  
볼스푼 도시락

**투자 고수와 놀자**  
김혜영 하나은행 은퇴설계센터 수석연구원  
노후 자산관리  
“넓~게 보고, 깊~게 가라”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 “삼성서울병원發 감염, 역학조사 기간 확대”

서울시 “관련 확진자 총 6명  
7일부터 접촉자 경로 조사”  
영등포 직업학교 추가 확진 없어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가 나온 삼성서울병원과 관련해 역학조사 대상 기간을 늘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8일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1명이 최초 확진 받은 이후 관련 확진자는 의료진 4명과 의료진 1명의 지인 2명, 총 6명”이라며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전국 11088번)의 지인 2명이 20일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간호사와 지인 2명은 9일 강남역 인근 주점 ‘홀릭스’, ‘악바리’와 ‘SBS노래방’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간호사가 삼성서울병원의 최초 감염 사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나 국장은 “의심을 하는 상황으로 조사 대상 일자를 많이 늘렸다”며 “무증상 상태로 9일 모임을 가졌는데 혹시 모르니 7일부터 전체적



21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진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접촉자를 넓게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 국장은 “현재까지 조사된 접촉자는 174명으로 능동감시 대상자는 606명, 선제적 대응을 위한 예방적 조치 대상자가 638명으로 모두 전수검사를 시행 중”이라며 “1418명 중 1233명이 검사했고 기존 양성 3명 외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 83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에 합동상황반을 운영 중이고 병원 본관 3층 수술장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와 긴급 방역을 완료했다”며 “접촉자 및 능동 감시자에 대해 총 3회에 걸친 주기적 검사를 하고 병원 구급차·외주업체 직원에게도 검사를 받도록 할 것”

## 양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서울 양천구는 국토교통부 주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 12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체험할 수 있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인프라가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정주 여건을 회복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양천구는 목3동 도시재생 뉴딜 지역을 대상으로 5개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을 응모했다. 최종 선정된 5개 사업은 △개비시장 스마트 안심 보행 서비스 △비대면 24시간 무인 스마트 도서관 △안전한 등굣길 프로젝트 △스마트 집수리 원스톱 플랫폼 구축 △스마트 분리수거 서비스 등이다.

양천구는 국비 지원 5억 원과 서울시·구 매칭비를 포함한 총 12억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6월부터 국토교통부, 유관 기관·부서와 추가 협의를 통해 1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희 기자 jh6945@

## 성동구, 랜선 청년학교 수강 접수

서울 성동구가 지역 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교육 ‘랜선 청년학교’ 참여자를 모집한다.

21일 성동구에 따르면 ‘랜선 청년학교’는 공공기관에서 그동안 개설했던 창업, 직업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사회 생활과 자립에 도움이 되는 자기계발, 금융교육 등 취준생과 직장인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직장, 학업 등 시간 제약으로 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저녁 시간대에 운영한다. 비대면 화상 플랫폼(ZOOM)을 활용해 실시간·양방향 교육으로 진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단 교육의 어려움을 보완했다. 총 4개 강좌로 △취준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스피치 교육 △직장인 비즈니스 스킵업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지식 △예술품에 대한 안목을 기르고 재테크 팁까지 챙기는 아티테크 교육으로 진행한다. 설경진 기자 skj78@

# 종로에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만든다

2024년까지 소방합동청사 건립  
종합방재센터·재난본부 배치  
서울 전역 40분 이내 신속 출동

서울시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도심권 종로구에 서울 전역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소방합동청사’를 건립한다.

서울시는 현재 종로소방서 자리에(부지면적 1987㎡) 연면적 1만7789㎡ 규모(지

상 12층, 지하 4층)로 ‘소방합동청사’를 건립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합동청사’는 119신고 접수부터 현장활동 원격지휘 통제까지 통합 관리하는 ‘종합방재센터’와 화재 예방·진압 등 서울시 소방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재난본부’가 배치된다. 종로소방서도 함께 입주한다.

그동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는 재난·사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분담하고 있지만 현재 중구 예장동 남산자락에 별도 청사로 분리·운영 중이었다. 이에 긴급상황 발생 시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

하고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를 서울 도심에 통합 배치함으로써 서울 전역에 대한 신속한 재난 현장 지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종로는 서울 전역 어디서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4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다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30%가 종로 광화문 도심에 있다. 30층 이상 고층건물의 66%가 광화문과 강남권에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서울시는 “서울의 도시적 특성을 고려해 소방합동청사 건립 위치를 광화문 도심권으로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며 “도시 중심부에 소방본부가 있는 뉴욕이나 도쿄 같은 세계 주요 도시의 사례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현상설계 공모공고를 하고 2021년 12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같은 해 12월 착공에 들어가 2024년 10월에 준공한다는 목표다.

박원순 서울시장장은 “이번 소방합동청사 건립은 재난·사고에 1초라도 더 빨리 대응하고,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경진 기자 skj78@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년, 퇴직자 등 많은 시립에서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매력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충일과 다르다. 실패들은 문턱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대충일 말고 실리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주)X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충일 이자, 후속한 성장형기업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제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현업에서의 책임감에서 출판에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적인 회계정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명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쾌리드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히려라든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랑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역별 지원 제도와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9년 시음 / 2019년 / 국문판 / 214,800원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지식을 책 읽기 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멍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될뿐, 같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영호 저 / 232쪽 / 4800원 / 215,800원

# ‘나’를 찾아가는 삶

## 긍정 못할 게 뭐가

### 성화(聖畵) 작가 정미연

경주시 남산 자락 소나무 숲속에 사는 정미연(65)은 성화(聖畵)로 이름을 얻은 화가다. 얻으면 얻을수록 어깨에 얹히는 하중도 커지는 게 이름이다. 더구나 성화란 성(聖)을, 지고지순을, 엄결(嚴潔)을 구현하는 그림이니 속세에 몸을 둔 화가로서는 얻는 게 있을수록 버거워 불편함에 사로잡힐 수 있을 게다. 그림은 고결하나 삶은 어이 부박한가? 이런 의문이 들었아서.

그러나 그는 세속을 어지간히 건넜다고 한다. 신앙으로, 기도로, 그림으로 부박한 삶의 때를 어지간히 행구어 이젠 마음의 소란이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갈 길이 멀다. 그는 여전히 남은 갈등과 갈등을 해 저물기 전에 처리하고 싶다. 살면서 내내 움켜쥐었던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더 옹골게 타야 할 필연을 느낀다는 거다.

“어떤 선각자가 말했다. 인생은 선반 위에 내려앉은 먼지를 닦는 것과 같다고. 잠시라도 닦지 않으면 먼지가 쌓인다고. 잠시만 방심하면 유혹이 스며드는 게 인생이지 않던가. 내 안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줄곧 그런 물음을 품고 살아왔다. 신앙으로 그 답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마음 안에는 여전히 갈등이 도사려 있다.”

당신이 알아낸 당신은 누구인가?

“창조주의 피조물이다. 여기엔 아무런 회의가 없다. 신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는, 내 존재의 근원이 창조주와 연결돼 있다는 확신이 깊어져서다. 그러나 여전히 삶에 서툴다. 나는 누구인가 파고들어 매번 깨닫는 또 하나의 진실은 내가 부족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신달자 시인은 정미연의 성화가 ‘천상의 모습은 물론, 천상의 평안마저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게 한다’고 극찬했다. 성화가 지닌 감화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나에게 성화 그리기는 기도다. 신앙이 무르익기를 염원하며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지. 절실한 신앙으로 영성을 갈구하는 마음, 정신, 그런 게 그림에 담기기를 희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작으나마 성취가 있었다면 그건 주님이 주신 선물일 뿐이다.”

#### #어머니의 묵주기도책과 성화

신의 사랑으로 사는 정미연의 눈은 광각렌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발견한다. 그러하니 완고했던 아버지를 두고서도 사랑 이외에 무엇을 더 말하랴. 어머니는 온전한 사랑의 화신이었다. 살아생전 ‘성모님’이라 불린 분이였다. 결혼 전 가톨릭에 입문했으나 ‘한동안 날라리 신자로 살았다’는 정미연이 성화를 그리



어머니 유품 묵주기도책 보고 ‘성화’ 시작  
서구적 양식 벗어나 예수에게 한복도 입혀  
삶이 꼬였다 느껴지는 건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걸 알 때  
‘나는 누구인가’... 그걸 찾는 삶에 올인

기 시작한 건 그 어머니가 남긴 묵주기도책 때문이었다. “심한 관절염으로 30여 년을 걷지 못한 채 지내면서도 8남매를 어엿하게 길러낸 어머니였다. 노년엔 촛불을 밝히고 앉아 묵주기도를 바치는 일로 일관하셨지. 어머니의 표정도 기운도 얼마나 맑았던지, 어린 내 가슴에 어머니를 향한 애정과 갈등이 일렁이곤 했다.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올리는 일도 잦았다. 그런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묵주기도책을 펼쳐들었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게 성화를 그리기 시작한 계기였다.”

어머니가 남긴 성스러운 이미지에서 성화 그리기를 착상했다는 얘기?

“그것만은 아니다. 묵주기도책을 만들어 어머니 영전에 봉헌하고 싶었다. 묵주기도책은 성모님과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성화와 묵상기도문들로 이루어지는데 성화를 내 손으로 그리고 싶었던 거다. 완성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죽을 만치 앓기도 했다. 기도문은 신달자 선생이 맡아 주셨다. 과분하게도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주목했다.”

성화로 방향을 바꾸기 이전, 정미연의 그림은 사뭇 달랐다. 아름답거나 미묘하거나, 억눌리거나 튀어나오거나, 인간이 지닌 복잡한 내면을 자유분방한 혹은 고즈넉한 작품으로 표출하기에 능했다. 그러다가 기도와 관조를

실은 성화로 이행했던 것. 그러다 정미연은 한 가지 재미있는 발상을 했다. 기존 성화들이 답습해온 서구적 양식에서 벗어나 한국적 전통 양식을 가미하자는 착안을 했다. 그는 예수의 옷을 한복으로 같이 입혔으며, 성모에겐 잔주름 곱살한 한국 어머니의 얼굴을 부여했다. 석굴암 전실이나 에밀레종 비천상을 성화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한국적이고 토착적인 성화를 그리면서도 불안했다. 혼자 고민하다 정교회 한국대교구 소티리오스 트람바스대주교님(91, 그리스 태생)이 미술에 조예가 깊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감수를 청했다. 그림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더라. 또 그분의 소박한 삶과 실천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 #고통은 신에게 더 가까이 가는 기회

민첩한 거동, 자주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 분위기에 생기를 집어넣는 순간의 센스. 돌돌돌 명랑하게 흐르는 시냇물쭈? 그의 언동엔 거침이 없어 청명한 물살을 연상시킨다. 기도로 진리를 간구하고, 성화 그리기로 영성에 찬 삶을 갈구해왔으니 파란만장 세상사야 이미 관통해 가뿐한가? 그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라는 믿음과 실감으로 기쁘다. 기쁘기에 평화로운 내부엔 에너지가 샘물처럼 고인단다. 흔하디 흔한 피를 뿜듯이 진을 빼며 그림과 씨름하지만 그는 색과 선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에세이도 많이 썼다. 그간 여러 권의 서화집을 출간했다.

“다작을 한다. 일단 구상을 하면 작업에 속도가 붙어 손쉽게 그림을 완성한다. 남편의 적절한 통제가 아니었다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물입이 지나쳐 건강을 해쳤거든.”

고 김수환 추기경을 기리는 기념관엔 당신이 만든 성상(聖像) 조각 작품들이 들어가 있다. 성화 작가로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한 셈이다.

“이름이나 위상에 무슨 의미가 있나. 미술계에선 성화를 쳐주지도 않는다. 외도로 여긴다. 한때 이름에 욕심이 생기기도 했지만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게 본분임을 알고 선 부끄러웠다. 성화는 순수하지 않으면 그릴 수 없다. 영혼을 다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성화가 나올 수 없거든.”

사람이 순수할 수만 있겠는가? 진정으로 순수해지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던걸. 신의 숲, 그 안전지대에 들어간 당신은 어떤가?

“아집과 불순에 휘말린 마음이 망둥이처럼 날뛰기도 한다. 그러나 믿는 자는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는 걸 알기에 믿음의 힘으로 망둥이눈을 수월하게 밀어내지. 진실한 신앙인들은 안다. 천사가 늘 우리를 보호한다는 걸. 기적은 성경 안에만 있지 않다. 삶이란 온통 기적이지 않던가? 세상엔 위선과 탐욕이 횡행하지만 삶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면 부정적인 마인드라는 게 들러붙을 자리가 없어진다.”

인도의 어떤 수행 무리는 이런 노래를 부른다. ‘신이여,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이토록 외롭죠? 왜 이토록 괴롭죠? 천사가 우리 곁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암초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선 홀로 고통스럽게 계속 노를 저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초라한 숙명이지 않나?’

“삶은 고통스럽지만 나는 고통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경로이자 기회로 삼는다. 신을 섬기는 자에게 극복하지 못할 고통은 없다. 있다면 그건 신의 소관사항이지. 신에게 맡기면 그만이지. 그렇다면 삶을 통해 긍정하지 못할 게 뭐란 말인가. 부족한 나는 부끄러워 성경 한 구절의 말씀이나마 실천으로 이루고자 노력한다. 이젠 더 먼 길을 떠나고 싶다. 삭발 수도자로 살고 싶다. 가족은 어쩔 거냐고? 부부가 함께 간다. 남편도 공감하니까.”

그는, 나다운 나를 찾아가는 삶에 올인하는 거다. 내 삶이 꼬였다 느껴지는 건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걸 알 때다. 어라,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네? 이 새삼스러운 발견은 괴롭지만 문제를 풀 실마리? 정미연의 드라마는 ‘나는 누구인가?’에서 시작해 다시금 ‘나는 누구인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흘러간다.

글/박원식 소설가 tititoto@hanmail.net  
사진/주민욱 프리랜서 minwook19@hanmail.net





우리금융그룹

# 함께하는 든든한 금융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기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극복했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내일을 준비할때  
 우리의 희망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 지원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시행되면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

서진영 부동산학회장 “정부 또다른 규제 카드 내놓을 것”

‘로또 분양’ 과열 막기 위해 개발이익 가져갈 청약 당첨자에게 용산 정비창 개발, 주택 부지보다 무역·금융 랜드마크 바람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채권입찰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서진영(사진)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면 정부가 ‘로또 분양’ 기대감으로 과열된 청약시장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진정적으로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인천 경인여대에서 만난 서 교수는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개발이익이 조립이나 건설사에 돌아갔다면 상한제 시행 이후엔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수익원의 이익을 얻으면서 개발이익의 주체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제보다 분양가가 더 내려가는 만큼 분양계약자 이익이 과도하게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시장가격과 공급금액 차이가 메꿔 과도한 이익을 막도록 이 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이번 정부도 로또 분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규제를 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국고로 환수한 채권 매입액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등 ‘사회적 환수’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 교수는 “정부가 공기업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안을 꺼내들면서 갈등이 심한 재개발 구역들은 이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표류하는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게 정부 구상이지만 공공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의사결정 과정이 오히려 더 지연될 수 있고, 입지가 뛰어나거나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지는 참여율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예산 계획도 분명치 않다고 서 교수는 설명했다.

서 교수가 크게 일갈한 부분은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이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백지화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으로 용산



개발에 시동이 걸렸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서울의 최핵심 요지(要地)의 노른자 땅을 공공임대가 대거 포함된 주택 부지로 개발하는 건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주거와 상업·업무·무역·금융 등 콤팩트 기능을 갖춘 랜드마크로 개발해 서울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서울 집값 약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경제가 치명상을 입은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매수심

리 불씨가 살아나긴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수요자들의 매수 여력 부족과 정비사업 규제에 의한 재건축 단지 가격 약세가 부동산시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로또 분양 기대감에 청약시장 열기는 더 거세지고, 청약 대기 수요와 매수심리 하락으로 전세시장 불안은 더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부동산시장에 불고 있는 프롭테크(Proptech) 바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내 프롭테크 산업이 부동산 중개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한 서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의 언택트(비대면) 트렌드에 맞추는 동시에 부동산 세금과 수익 등을 분석하는 종합자산관리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세무·중개·등기 등의 업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업역 간 칸막이부터 깨는 등 제도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 교수는 19대에 이어 제20대 대한부동산학회장으로 연임하면서 3년째 학회를 이끌고 있다. 임기는 내년 말까지다. 그는 “학회가 올해로 불혹을 맞았다”며 “앞으로 국내 부동산 정책의 중추적 역할 담당하고, 부동산시장이나 정책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활동적인 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도쿄 올림픽 재연기 없다 내년엔 못하면 없던 일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사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연기된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2021년에 개최하지 못하면 중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바흐 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전문가들) 신뢰하고 (그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적절한 시기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세계가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1년 2개월 후에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도쿄 올림픽의 새로운 일정은 내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다. 만약 코로나19 영향이 남아 있는 경우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분석했다. 선수와 관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도쿄 올림픽 6개월 뒤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2022년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 바흐 위원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내년 여름이 도쿄 올림픽 개최의 ‘마지막 선택’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선 기자 hsbun@

금호타이어, 최혜진 공식 후원  
KLPGA 데뷔 4년차 통산 9승

금호타이어가 여자골프에서 주목받는 최혜진(사진) 프로와 후원계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4월 서울 분사에서 프로 후원 조인식을 하고 올해 말까지 최 선수를 공식 후원하기로 했다. 조인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부 관계자만 참석해 약식으로 진행됐다.

최 선수는 2017년 KLPGA에 등장해 신인답지 않은 실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만 18세가 아니라 아마추어 신분이었음에도 시즌 2회 우승과 ‘US여자오픈’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하며 1995년 박세리 선수의 4승, 1999년 임서현 선수의 2승 이후 18년 만에 KLPGA ‘아마추어 다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같은 해 8월 만 18세가 됨으로써 정식으로 프로에 데뷔해 2018년에는 대상과 신인상을 동시 수상했고, 데뷔 2년 만인 지난해 대상과 상금왕을 비롯해 6개 부문을 독식함으로써 전광왕을 차지했다. 이로써 아마추어 시절 포함 현재까지 통산 9승을 기록 중으로 더 큰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다. 이번 후원 계약으로 최 선수는 매 경기 시 우측 옷깃 부분에 금호타이어 로고가 부착된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다. 유창욱 기자 woogi@

## SK이노, 협력사 소속직원에게 ‘행복지원금’ 10만원

25곳에 총 2억2000만원

SK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일 SK이노베이션 울산 공장(CLX) 본관에서 ‘SK협력사 행복 더하기’ 행사를 열고 협력사 직원들에게 행복지원금 2억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상년 SK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이사, 김홍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SK이노베이션 울산CLX 박경환 총괄부사장과 이성훈 노동조합위원장 등 기금 출연 주체와 협력사 직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행복지원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25개 SK협력사 소속 전 직원에 1인당 10만 원씩 은누리상품권으로 개별 지급했다.



SK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주체와 협력사 직원 대표 등이 행복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박경환 SK이노베이션 울산CLX 총괄부사장, 김홍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협력사 직원 대표인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이은철·고려공업 검사 강혜미 씨, 김상년 SK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이사, 이성훈 SK이노베이션 노동위원장.

다. SK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SK이노베이션 울산CLX 구성원의 기본급 1%에 회사가 출연해 조성한 SK 1% 상생기

금, 협력사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더해 총 15억2000만 원 규모의 재원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 KCC글라스, 지역 아동환경센터에 친환경 바닥재 기부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따스한 공간 만들기’ 업무 협약

KCC글라스는 20일 종로구 대한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따스한 공간 만들기’ 업무 협약식(사진)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KCC글라스는 지역아동환경센터에 친환경 바닥재를 기부할 계획이다.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학습 능력 증진을 위한 깨끗하고 안정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다.

KCC글라스의 PVC바닥재 ‘숲’ 시리즈는 환경표지인증, HB마크 최우수 등급 등 국내 주요 친환경 인증마크를 얻었다. 표면 코팅층에 편백 기름을 첨가하고, 제품 제조공정에 KCC글라스만의 독자적인 유해물질 휘발공법을 적용했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이번 바닥재 기부를 통해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조금



이나마 보탬이 되고 힘이 되길 희망한다”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가치를 높이고 함께 공존하는 것은 KCC글라스가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CJ대한통운, 중서 ‘K-물류’ 인기 브랜드 순위 톱50에...외국계 9위

한류와 K-POP에 이어 CJ대한통운의 ‘K-물류’의 인기가 중국에서 높아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중국 물류전문 뉴미디어 회사 LOG가 발표한 ‘2020 중국 물류 브랜드 TOP 50’에서 종합 브랜드 순위 44위에 올랐다고 21일 밝혔다.

LOG는 중국의 물류전문 정보 플랫폼으로 공공물류, 공급망관리 등 물류업계 관련 PR, 컨설팅, 마케팅, 리서치 서비스 및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TOP 50 순위는 대중, 산업, 정부, 인식 등 4가지 분야의 인지도 및 영향력을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외국계 물류기업 중에서는 미국 국제특송사 페덱스가 가장 높은 순위인 15위를 차지했다. 44위를 기록한 CJ대한통운은 외국계 물류기업 중 9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종합 브랜드 순위와 함께 발표된 ‘CL(Contract Logistics) 산업부문 브랜드 순위’에서는 CJ대한통운이 중국 전체 물류 브랜드 중 10위를 차지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고려대 구로병원 은백린 교수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은소아청소년과 은백린 교수가 의학 분야 최고 권위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 신임 정회원으로 선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은 교수는 1959년생으로 1984년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으며, 1995년 미국 미시간대학 병원과 2009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소아병원에서 소아신경학 연수를 하였다. 고려대 구로병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대한의학회 학술진흥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 인사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전보 △기획관리관실 기획법무담당관 김주경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 원시연
- ◆교육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담당관 문상연 △감사총괄담당관 이석현 ◇서기관 승진 △대변인실 김관중 △고등교육정책실 조홍선 △고등교육정책실 임중흠 △학교혁신지원실 윤혜준 △교육복지정책국 김정원
- ◆산업은행 ◇본부장 △기간산업안전기

- 금분부 강병호 ◇부점장 △기업구조조정2실 김수아 △기업구조조정3실 배석희 △기금사무국장 박찬호 △기금운용국장 김지완
- ◆주택금융공사 ◇본부장보 전보 △기획조정실 이규진 △주택금융연구원 권오훈 ◇부점장 전보 △경영혁신부 박광길 △정책모기지서비스센터 손진국 △전북지사 이상구

### 부음

- ▲함복실 씨 별세, 임병근(인사혁신처

- 심사임용과장)·병연(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이사)·병철(세기상사 사장)·병영(프라미스 소아과 원장)·귀순·귀녀·영순 씨 모친상 = 2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실, 발인 23일 오전 6시40분, 02-3010-2000
- ▲이순탁 씨 별세, 박경훈(캐나다 거주)·석훈(대우건설 홍보팀장)·철환(파라다이스카지노부산 차장) 씨 모친상, 강미선(캐나다 거주)·박지영(전 대우건설 부장)·최미란(파라다이스호텔부산 차장) 씨 시모상 = 20일,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9호, 발인 23일 오전 7시,

- 051-711-4400
- ▲조정강 씨 별세, 김주한(한국필립모리스 상무)·주종(주식회사 한국A1 대표이사) 씨 모친상 = 2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 02-3010-2000
- ▲나상재 씨 별세, 나귀옥·귀숙·귀연·희선 씨 부친상, 김현준(김·장법률사무소 부장)·김영현(연합뉴스 뉴텔리콤파원)·이주현(서울시설공단 차장) 씨 장인상 = 21일, 경기도 한양대구로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 031-560-2430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회장 서울대 객원교수

30년이 넘는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나니 기회가 왔다. 그림을 배우러 취미 학원에 등록을 하였다. 한 달여 간단한 소묘를 배우고 나서 수채화를 그렸다. 그림이 완성되어 가면서 성취감과 함께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사물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몇 해 전 퇴직하고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후 재미를 느끼면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시간이 나면 붓을 잡는다. 처음에는 수채화를 그렸는데 얼마 전부터 수묵화를 배우고 있다. 둘 다 물감을 물에 개어 그리는데, 수묵화는 따로 밑그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정도 불가능해서 붓 놀림이 훨씬 어렵게 느껴진다. 동양화가 현실보다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그림이란 말이 실감난다.

더러 지인들이 왜 그림을 그리는지 궁금해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특히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내 시간이 생겨 취미로 그린다"고 했다. 그랬더니 왜 다른 취미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림이냐고 묻는다. 이 경우는 질문하는 사람도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답이 길어진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1960년대 말 군 단위에 있는 초등학교를 2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2학기에 아버지 직장을 따라 도시로 전학을 갔다. 그때만 해도 중학교 입시가 있어서 소위 명문 중학교를

보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당시 어린 나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매우 있었다. 월요일 아침마다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을 운동장에 도열시키고 조회를 하였다. 그곳에서 성적 우수자나 외부 수상자에게 표창을 주고 나서 훈화 말씀을 하였다. 그 무렵 마이크 성능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6학년 학생부터 도열을 하였기 때문에 저학년은 뒷줄에서 있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냥 지루하기만 한,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시간이었을 따름이다.

그런데 3학년 어느 날 이 행사가 갑자기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되었다. 당시 지역 언론사에서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사생대회를 개최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원에 가서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였는데, 수상에 대한 기대는 애초부터 없었고 사생대회 후 친구들끼리 노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갑자기 신문사에서 연락이 와서 부모님과 함께 오라는 것이다. 어머니를 따라가니 몇몇 학생들이 와 있었다. 신문사 관계자가 내 이름을 부르더니 사생대회 초등부 최고상을

받았다고 한다. 며칠 후 나는 영광스럽게도 전교 학생들이 도열한 조희시간에 연단에 올라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최고상을 수상하였다. 기쁨과 함께 그 연단에 다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솟구쳤다.

그후로 사생대회는 남의 일이 아니었다. 출품하면 최고상은 아니어도 특선,佳作 아니면 입선이라도 했다. 교내 특별활동 모임도 미술반을 가입하였다. 한참 그림에 대한 열정이 올라오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개입하셨다. "시골에서 올라올 때 그림 그리라고 온 게 아니다. 공부를 해야지."

그런 다음 특별활동반도 독서반으로 바뀌었다. 중학교에 진학하고 2학년까지 미술 시간이 있었지만 3학년부턴 입시가 거의 전부인 생활이어서 자연스레 붓을 잡을 기회도 없어졌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대 후반에 해외 국제기구에 근무할 기회가 생겼다. 외국인 동료들과 자연스레 어울렸는데, 특히 우리와 가까운 일본 친구들이 자전거 조립, 사진, 악기 연주 등 사소하지만 한 가지라도 모두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시간이 나면 술 마시고 함께 노래하

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때부터 나도 언젠가 취미를 가지고 싶었고, 그림을 그렸으면 생각했다.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한 막연한 환상도 있었고.

드디어 어느 날, 30년이 넘는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나니 기회가 왔다. 그림을 배우러 취미학원에 등록을 하였다. 한 달여 간단한 소묘를 배우고 나서 수채화를 그렸다. 그림이 완성되어 가면서 성취감과 함께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사물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가끔 완성된 그림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많은 패진들이 '좋아요' 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내가 그리는 그림에서 수많은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정하거나 덧칠할수록 완성도가 높아지지는커녕 오히려 더 지저분해질 뿐이었다. 고민의 순간, 그림 선생님의 한 말씀이 계속해서 붓을 잡게 한다.

"저처럼 그리고 싶으시지요. 저는 평생 그림만 그렸는데 웬만해서는 어려울실 겁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제가 가지지 않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잘 그려려고 하기보다, 비우고 버리세요!"



이난영의 과학 놀이터

과학 칼럼니스트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벌써 4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거리를 활보할 수 있고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료제나 백신 관련 소식이 들릴 때마다 다들 '어디서라도 제발...' 하는 마음으로 귀를 더 쫓고 세우게 된다.

그런데 얼마 전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접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연구진이 방사광가속기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처음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 발표에 유독 눈길이 갔던 건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치료제 타미플루가 비교적 빨리 개발된 덕에 대규모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기억 때

코로나바이러스와 방사광가속기

문이다. 타미플루의 이른 개발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단백질의 결합 구조, 좀 더 풀어 말하자면 세포막 바깥에서 작용하는 병원성 단백질이 어떻게 세포막과 반응하는지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단백질 등의 생체분자를 들여다보는 건 그다지 새로운 일은 아니다. 19세기 가 끝나갈 무렵 독일 물리학자 쾨트젠은 매우 강한 투과력을 가진 광선 하나를 찾아냈는데, 이 광선에 알 수 없다는 의미로 X-선이란 이름을 붙여줬다. X-선은 파장이 매우 짧아 원자 단위에서 물질의 물리화학적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도 X-선을 이용한 수많은 연구 결과 중 하나다. 그런데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을 위해서는 정지해 있는 단백질의 구조를 규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바이러스 단백질이 세포막을 뚫고 침입하는 것과 같은 능동적인 변화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 메커니즘을 알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단백질 분자와 세포의 반응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

방사광가속기에 그 해답이 있다.

가속기는 말 그대로 입자의 운동 속도를 빠르게 증가시키는 장비인데, 이때 가속 원리에 따라 선형 혹은 원형 가속기로, 그리고 가속되는 입자에 따라 양성자 또는 중성자 가속기 등으로 명칭을 달리한다. 하지만 이름과 무관하게 모든 가속기의 주목적은 입자의 가속 및 충돌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자연현상 연구로 동일하다. 하지만 전자를 가속시키는 방사광가속기의 경우는 좀 다르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된 전자가 전자기장 내에서 로렌츠 힘이란 걸 받는데, 이로 인해 전자의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한다. 예를 들어 횡방향으로 운동하던 전자는 로렌츠 힘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그 궤도가 휘게 되는데, 이때 X선과 같은 방사광의 형태로 에너지 방출이 발생한다. 방사광가속기는 이 방사광을 모아 물질 분석 연구에 활용하려는 첨단장비로, 다양한 파장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어 '빛의 공장'으로도 불린다.

사실 방사광은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 그리고 이로 인한 입자 가속의 어려움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성가시고 불편한 존재 취급을 받아왔다. 이런 인식 때문인지 198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방사광 발생과 사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2세대 방사광가속기가 건설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더 늦어서 1994년 경북 포항에 3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섰고, 2017년 4세대 선형 X선 방사광가속기가 추가됐다. 하지만 여기서 생산되는 빛의 품질이 좋지 않아 정밀 연구에 한계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4기가전자볼트(GeV) 수준에 밝기가 태양 빛의 1000억 배에 달하고 빔을 생산할 수 있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가 충북 청주에 2028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될 거란 발표가 있었다. 이 정도의 가속기라면 기초과학 연구나 제반 산업 분야에 획기적 영향을 미칠 연구가 가능하리라 본다. 개인적으로는 이곳에서 공공의 선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의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일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도 나와주었으면 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아서 코난 도일 명언 "범인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재능을 가진 사람은 천재를 즉시 알아본다."

영국 추리작가. 명탐정 홈스를 창조해내 추리소설을 고전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는 홈스가 처음 등장하는 소설 '후층색 연구'를 세상에 내놓은 이후, 폭발적 인기로 명성을 누려 '마지막 문제'란 작품에서 홈스를 죽게 하지만, 독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바스커빌가의 개'를 통해 다시 살려냈다. 오늘은 그의 탄생일. 1859~1930.

☆ 고사성어 / 약뽕소선(若烹小鮮)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가만히 두고 지켜보며 기다리는 정치를 비유하는 말이다. 작은 생선을 요리할 때 마구 휘저으면 살이 연해서 부서지기 쉽기 때문이다.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이 원전.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듯이 해야 한다[治大國若烹小鮮]."

☆ 시사상식 / 티포타(Tit for Tat) '상대가 가볍게 치면 나도 가볍게 친다'라는 뜻. 이 전략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상대가 자신에게 한 대로 맞대응하는 게 임 이론에서 유래되었다. 첫 번째 시행에서는 일단 협력하고 두 번째 시행부터는 상대의 선택을 그대로 따라 한다. 상대가 협력하면 협력하고 상대가 배반하면 배반한다.

☆ 신조어 / 눈바디 '눈(眼)'과 체성분 분석기 브랜드 '인바디'의 합성어. 눈으로 확인하는 바디(몸)를 뜻한다. 요즘 다이어트하는 이들은 무게보다는 거울을 보면서 눈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자신의 '눈바디'를 기록하는 것이 트렌드.

☆ 유머 / 까만색 콘돔 남자가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검정색 콘돔 있습니까?" 약사가 그런 거는 없다며 하필이면 왜 까만색을 찾느냐고 묻자 남자가 한 말. "그게 맞습니다. 지금 상중(喪中)이어서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대학들이 어느덧 종강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격 수업 부실 등으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이 같은 불만에도 대학을 핑계 삼아 미적대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은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뺐다.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 방역, 온라인 강의 준비 등으로 재정난을 겪는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금 반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관계자는 "대학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방역비와 원격 수업비용 등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등록금 반환보다 온라인 강의의 내실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요청대로 대학이 등록금 반환의 일환

인 특별장학금 활용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일반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힘을 보태야 한다. 하지만 교

손현경 사회경제부/son89@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 해법 찾기

육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대학들은 '특별장학금 검토' 등 여러 방안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반환을 대체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고 싶어도 재정 여력이 없어서 '특별장학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에 달렸다. 대학 혁신 등 혁신지원사업 목적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7000억 원가량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일부를 특별장학금으로 돌려 쓰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정리해야 한다. 기재부와 교육부 등 당국은 지금이라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풀어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슈&인물

스마트팩토리 보안

임고은 SK인포섹 하이테크 담당

# “보안은 불편하다? 이 생각부터 바꿔야죠”

“어느 산업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먼저 보안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죠. 아직도 ‘보안은 불편하다’는 인식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임고은 SK인포섹 하이테크 담당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보안이라는 요소가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스마트공장) 분야라면, 사업 제안 단계에서부터 왜 필요하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고은 담당은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보안을 책임지고 있다. 스마트팩토리란 초고속 이동통신망(5G)과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해 생산·패키지 등 공정과정의 설비와 장치를 무선으로 연결해 IT 기술로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공장을 말한다. 최근 공장 자동화의 도약으로 무선으로 시설을 제어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팩토리 보안 분야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 게 임 담당의 생각이다.

◇스마트팩토리·보안 대비해야 = 임 담당은 스마트팩토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장이 자동화되면 보다 고도화된 플랫폼과 솔루션을 통해 생산 장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며 “안전한 생산 환경이 구축될 수 있고 효율적인 공장 관리를 통해 생산성이 증대되며, 공장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국내 제조업의 발달을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 개 보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임 담당은 “정부 차원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와 관련 보안 강화 전략이 추진되고 있어 스마트공장 보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덩달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마트공장 보안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묻자 임 담당은 “기존 공장들의 제조공정의 과정이 외부망과 차단된 폐쇄망에서 운영됐지만, 스마트팩토리는 제조공정라인을 구성하는 모든 시스템과 센서가 연결되다 보니, 작은 보안 홀(Hole-결함)이 큰 피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용 저장장치(USB) 하나로 3000억 원의 손해를 입은 노르웨이 회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 기업인 노르웨이의 노르스크 하이드로(Norsk Hydro)사는 랜섬웨어에 감염된 USB 하나를 꽂는 바람에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을 겪었다. 노르스크 하이드로는 약 3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덩달아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으로 이어졌다. 작은 실수가 세계 경제에 까지 영향을 끼친 사례로 꼽힌다.

임 담당은 “스마트팩토리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스마트팩토리에서 일어나는 보안 사고는 막대한 재정적 피해는 물론,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안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보안은 필수 = 임 담당은 IT 분야가 4~5년 주기로 설비를 교체하지만, 제조 공장 설비는 20년 이상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니 해당 설비에 구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경우도 다반사라는 것이다.

임 담당은 “최근 윈도우7 사례에서 보듯이 구형 OS가 설치된 공장 설비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 대비가 꼭 필요하다”며 “24시간 운영되는 공장 설비인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 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쉽게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주로 고객의 스마트팩토리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임고은 SK인포섹 하이테크 담당은 “고객 니즈(요구)에 맞는 새로운 보안 체계를 기획하고, 사업화하는 일 등으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 기존 제조공장 스마트팩토리화 정부, 2022년까지 3만곳 보급

## 스마트공장 노리는 사이버 공격 작은 보안결함, 치명적 피해 유발

## 지난해 노르스크 하이드로社 랜섬웨어 감염 3000억원 손실

## IT 장비 교체주기 4~5년인데 제조 설비는 20년 이상 사용

## 구형 SW 쓰는 공장 적지 않아 보안엔 시간·비용 아끼지 말아야

분까지 깊이 있게 고민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다수 제조기업은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보안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고, 올해 4월 초에는 산업 제어 시스템(ICS) 보안 분야에 대한 KS표준도 마련돼 있어 기업의 어려움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 담당은 스마트팩토리는 장비들이 다양하므로 중앙에 보안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생산설비에 적합한 솔루션과 보안 정책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산공정 단계의 실무적 지원을 얻는 것”이라며 “생산공정의 실무자가 보안 환경 변화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보안을 강화해야 하므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그렇지만 쉽지 않은 도전과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보안 경험 총동원한 대형 반도체 공장 = 임 담당은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로 중국 대형 반도체 공장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중국 합작법인 반도체 공장에서 보안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참여했다.

임 담당은 “20년의 직장생활에서 맡은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다”며 “프로젝트 주주 전까지 계약이 없어질 뻔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기억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다.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반도체

공장의 건설 단계부터 참여해 보안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임 담당은 “수주 당시에는 굉장히 기뻐했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고객에게 누가 될까 걱정도 많았다”고 했다.

6개월 이상 중국 현지에서 체류하며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인력을 꾸리기도 쉽지 않았다. 다행히 4명의 팀원이 중국으로 건너갔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SK인포섹의 중국 첫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당시의 경험은 지금도 저를 비롯한 팀원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어 올해 새롭게 맡은 스마트팩토리 사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한다.”

◇20년 전문가의 탄생 = 임 담당은 2001년 SK그룹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SK텔레콤 시스템 운영 지원 부서에서 운영업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약 10년간 IT시스템 구축과 전사 보안 컨설팅, 솔루션 구축 프로젝트 매니저(PM) 등 업무를 해왔다. 2014년 보안 전문 계열사인 SK인포섹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 담당은 보안이 IT 분야의 최상위 영역이라고 자부했다. 2008년에 전사 보안 컨설팅 및 솔루션 구축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전까지는 IT 엔지니어 역할을 하며 시스템 계층에 들어가는 보안 요소와 관련 솔루션 등을 이해하는 정도였다.

그는 “막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정보보호 관점에서 전사 시스템을 진단하고, 개인정보 흐름과 현황 등을 분석하다 보니 여태껏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흥미가 느껴졌다”며 “그 이후로 패킷 분석이나 SQL 인젝션 공격 등 해킹 기술들까지 관심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 분야의 매력에 대해 “엔드포인트(최종 고객 접점)와 네트워크, 서버 등 시스템 요소부터 보안 컴플라이언스(보안 규정 준수)에 이르기까지 제반 요소를 모두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보안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담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고, IoT 환경에서 자유로이 연결된 세상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공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가장 큰 발전을 이루는 분야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사설

## 전월세 신고제, 전셋값 급등 대비책 있는가

정부가 부동산 매매처럼 전·월세 계약도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내놓고, 올해 안에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이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 구체적 내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거래정보도 정부가 모두 알 수 있다. 그동안 세금 탈루가 많았던 일반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가능해진다. 현재 주택의 전월세 거래 가운데 임대차 정보가 제대로 파악되는 것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임대인들이 세금부담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전월세 신고제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에 이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포함한 ‘임대차보호 3법’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 문제다. 제도 변화에 따른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전월세값이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임대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됨으로써 늘어난 세금이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세입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1990년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당시, 제도 도입 직전인 1989년 서울 전셋값이 24% 폭등했고 제도가 시행된 1990년에도 16%나 올랐었다. 게다가 지금 전세시장이 매우 불안해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작년 7월부터 46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아파트 입주물량은 앞으로 2~3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마당에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시장이 자극받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 해도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규제정책일수록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주택 임차인 등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제도가 오히려 정책 수혜자인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더 힘들게 만드는 부작용을 가져올 소지가 크다. 현재 서울의 경우 주택의 세입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전셋값 급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고려해 면밀한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영화로 보는 세상

## 취직 못한 너 잘못 아냐 ‘내 강패 같은 애인’

개인 의견이지만 정년 연장에 반대다. 1년 연장이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0.25개가 줄어든다. 최악의 실업난의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다. 솔직히 그들은 우리 기성세대보다 훨씬 사회로 나갈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이들이 때를 잘못 만나 하염없이 좌절하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안타깝다. 영화 ‘내 강패 같은 애인’은 제목과는 느낌이 다르게 한국 사회 젊은이들의 취업난을 밑바닥에 깔고 있다.



지방에서 줄곧 장학생이었던 세진(정유미)은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당당히 취직하지만,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 줄지에 백수가 되고 다시 구직 전선에 나선다. 반 지하 방으로 옮기게 된 세진은 강패같이 보이는 어설피른 샴류 건달인 옆방 세입자 동철(박중훈)과 만나게 된다. “아직도 취직 못 한 거야? 하하튼 우리

나라 젊은이들은 착해요.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취직 안 시켜 준다고 데모하고 부수고 난리 치더라만...”

둘은 만날 때마다 티격태격 싸우면서 점점 속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고 마침내 세진은 지방대 출신에 여자라는 단점을 극복하고 우여곡절 끝에 최종 합격하게 된다. 몇 년 후, 세진은 당당히 대리에 승진하고 사회에 안착한다. 영화는 달달한 로맨스 코미디의 정석으로 둘의 재회를 빼놓지 않는다.

세진이 가장 힘들 때 동철은 이렇게 위로하곤 했다. “기죽지 마... 취직 못한 너 잘못 아냐, 씨바...”

동철의 이 한마디에 취업난에 허덕이는 이들을 둔 아빠들은 코끝이 찡해진다. 참, 박중훈의 연기는 명불허전이었다.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KB 차차차

Liiv 리브모바일

GLOBAL ONE MARKET

Liiv Mate

‘매물대수1위, 중고차 거래 플랫폼’  
편리성과 안심거래로  
중고차 거래를 신뢰로 바꾸다

‘금융권 최초 이동통신 서비스’  
혁신적인 통신 혜택으로  
생활을 바꾸다

‘해외주식 원화거래 서비스’  
해외주식 거래도  
국내주식처럼 쉽게 바꾸다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KB 통합 포인트 플랫폼’  
포인트 적립부터 결제까지  
소비생활을 현명하게 바꾸다

‘내 일상에 꼭 필요한 암보험’  
당신의 일상이 더 건강하도록  
보험의 상식을 바꾸다

# 누리보세요! KB가 만들어가는 쉽고 편리한 세상

세상을 바꾸는 금융



[리브모바일]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0863호(2020.05.14) 광고물 유효기한 2020.12.31 [KB차차차] 2020년 4월 글로벌리서치 <중고차거래플랫폼 리서치> 기준 [리브메이트] KB국민카드 준법감시인 심의필 200512-01466-ADP호(2020.5.12 기준) [글로벌원마켓]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2239호(2020년5월13일) \*투자 전 설명 청취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손실가능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기준 0.25% (매도시 0.00221% 제비용 별도),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 \*서비스 중도해지시 환전수수료 발생 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 국가 :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갱신형 담보의 경우 10/15/20/30년 갱신이며, 최대 갱신 종료 나이는 100세입니다(담보별 상이). 또한, 갱신 시점의 보험료는 연령 증가, 위험률 증가 등 변동에 의해 갱신 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 시점의 보험료 최초(갱신 전) 계약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전 자세한 상품 내용과 제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사항 및 지급제한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필 제 30632호(2020.05.18)